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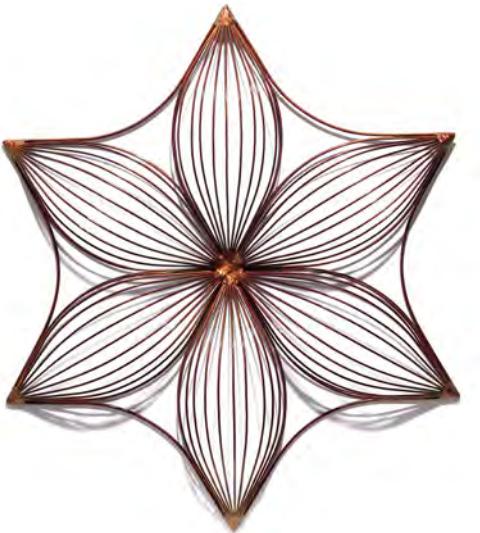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7 SPRING • VOLUME 48

cover artist

Kim Byungjin

김병진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치며 만드는 긴장감과 에너지는 언제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병진의 작업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철쟁이'라 칭하는 김병진은 차갑고 무거운 철을 소재로 따뜻하면서도 서정적인 작품 세계를 창조해 낸다. 가느다란 철선으로 표현해 리듬감 넘치는 식물의 모습이나 부드러운 형태의 동물 캐릭터 또는 과일 오브제를 통해 건네는 의미 짐짓한 질문.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와 주제는 그의 작업 안에서 충돌하며 간극을 발생시키고 관람자는 그 간극을 색다른 사유로 채우며 즐거움을 느낀다. 작품 중앙으로 빛과 공기가 드나드는 것처럼, 메시지를 가두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여백을 통해 감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관람자와 대화해 온 김병진. 그래서 투명한 조각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은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철의 미감을 통해 소통의 공간을 탄생시킨다.

AJU
아주



아주그램 매거진 「아주좋은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받아 보세요.





왼쪽부터. Shell drawing, steel wire, powder coating, 100x80x50cm, 2010
 Pottery_Louis Vuitton, steel, car print, 43x43x40cm, 2012
 Apple-love, steel, 20x20x25cm, 2011
 Toy Love, steel, car print, 45x54x65cm, 2012
 Paprika_Love, steel, car print, 31x31x47cm, 2012
 Car Love, steel wire, car print, 105x70x15cm, 2012
 Shell drawing, steel wire, powder coating, 113x110x62cm, 2010
 Pottery-chanel, steel, 34x34x62cm, 2012
 Apple-letter, steel, 28x28x35cm, 2011

차가운 철에서 건져올린 온기 그리고 서정

김병진의 작품은 철이 지닌 차가움과 강인함에 대한 도전이다. 그가 철을 재료로 조형하는 것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 LOVE의 철자. 그는 각각의 철자를 연결해 동물, 과일, 하트 등 친근한 사물을 구현한다. 부드러운 형태와 따뜻한 색감으로 구성한 오브제는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작품 안에서 일하는 문자를 발견한 관람자는 사랑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에 이른다. 그 외에도 김병진은 명품 로고로 형상화한 우리 도자기를 통해 진정한 명품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가녀린 철선을 활용해 꽃과 나무, 자연이 지닌 서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차가운 철을 따뜻한 관점에서 해석하며 관람자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그의 작업은 다양한 감상을 수용하기 위한 투명한 공간을 품은 채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표지. Apple-love(G), 2011, Steel, 20x20x25cm
 뒷표지. Blossom 9623, 2009, Steel Wire, Beads, 90x850x12cm

우리만의 시그너처 특별한 가치를 만들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외투를 열고 가슴을 편 채 봄의 기운을 맞이합니다. 개구리는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고 꽃망울도 세상을 보려 화사하게 피어나지요. 생각해 보면 봄은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계절입니다. 잠재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마음을 열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지요. 이토록 환한 계절, 「아주좋은날」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펼쳐 봅니다. 처음엔 수줍을 수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용기는 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결국 진정한 나를 완성시켜 줄 테니까요. 모든 꽃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것처럼 우리도 나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몸짓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마음가짐입니다.

아주 좋은 날

2017 SPRING • VOLUME 48 AJU QUARTERLY MAGAZINE

「아주좋은날」은 다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학,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Contents



김병진
Apple_Apple, steel, car print,
46 x 52 x 10 cm, 2011

Section 1.

- | | |
|---------------------|--------------------------------------|
| 02 gallery | 우리만의 시그너처 특별한 가치를 만들다 |
| 08 opinion | 율로를 넘어 나만의 지혜로운 행복으로 |
| 10 insight | 메시지를 품은 캐릭터, 감동을 선사하다 |
| 14 people |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사람 냄새로 따뜻하게
카파라이터 정철 |
| 18 curator's choice | 사임당,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

Section 2.

- | | |
|-------------------------|---------------------------------------|
| 21 culture and the city | 파스타의 고향 시칠리아가 선사하는 봄의 성찬 |
| 28 motor story | 마음을 질주하게 하는 모터쇼 이야기 |
| 32 favorite things | 밥 하는 여자, 엄마 그리고 봄
요리 연구가 한복선의 餘暇食美 |
| 36 scene of object |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위한 건배
<로마의 휴일> 키안티 와인 |

Section 3.

- | | |
|------------------|------------------------------|
| 39 aju spirit | 직장인, 율로 라이프를 즐겨야 하는 이유 |
| 44 aju sharing | 꿈과 우정의 만남, 아주 행복한 공부방 연합 나들이 |
| 48 aju news |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
| 52 reader's view |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

Art + Life

- 02 gallery 우리만의 시그너처 특별한 가치를 만들다
- 08 opinion 율로를 넘어 나만의 지혜로운 행복으로
- 10 insight 메시지를 품은 캐릭터, 감동을 선사하다
- 14 people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사람 냄새로 따뜻하게
카파라이터 정철
- 18 curator's choice 사임당,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Now + Moment

- 21 culture and the city 파스타의 고향 시칠리아가 선사하는 봄의 성찬
- 28 motor story 마음을 질주하게 하는 모터쇼 이야기
- 32 favorite things 밥 하는 여자, 엄마 그리고 봄
요리 연구가 한복선의 餘暇食美
- 36 scene of object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위한 건배
<로마의 휴일> 키안티 와인

Aju + Style

- 39 aju spirit 직장인, 율로 라이프를 즐겨야 하는 이유
- 44 aju sharing 꿈과 우정의 만남, 아주 행복한 공부방 연합 나들이
-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AJU QUARTERLY MAGAZINE

2017 SPRING | VOLUME 48

발행일 2017년 4월 17일(통권 제48호) 발행처 아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02-3475-9693)
인쇄 삼성문화인쇄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안그라픽스 편집 유재원 아트디렉팅 이성일 디자인 이승희, 박단비
등록번호 서초 바00148호

「아주좋은날」은 계간으로 발행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앤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TAPIS DE FLEURS

화합의 메시지가 담긴 꽃의 카펫 브뤼셀 그랑플라스 꽃 카펫 축제

벨기에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에는 2년에 한 번씩 꽃의 카펫이 깔린다. 짹수 해마다 꽃 카펫 축제가 개최되는 덕분이다. 색색의 베고니아꽃으로 수놓은 화사한 문양과 광장 주변의 고딕 양식 건축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하지만 꽃의 빛깔과 향기에 취해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꽃 카펫 축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아름다움이 꽃의 아름다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 축제는 조경 건축가 스타우테망 E. Stautemans이 처음 설계한 것으로 벨기에의 전통 풍습을 계승해 만들었다. 세계 최대의 베고니아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벨기에가 1971년 전 세계에 베고니아를 홍보하고자 전통을 반영한 축제를 기획한 것. 첫 축제의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런던, 파리, 미국 등에서 순회 행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꽃 카펫이 가장 빛나는 도시는 벨기에였고 꽃 카펫은 1986년부터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정기 개최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다채로운 색의 꽃을 한데 모아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같이, 꽃 카펫 축제는 지역 주민과 세계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축제 준비에 참여해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꽃 카펫을 완성한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터키인의 벨기에 이민 50주년과 일본과 벨기에의 수교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전통 문양을 선보였다. 축제의 진정한 지향점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수만 송이 꽃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그리는 축제. 따뜻한 메시지를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는 움직임이 꽃 카펫을 세계인 모두의 축제로 완성하고 있다.



HANOK VILLAGE

한옥으로 지킨 민족의 정체성

전주 한옥마을

『훈불』의 작가 최명희는 전주를 일컬어 “꽃심을 지닌 땅”이라 했다. 꽃의 힘, 꽃의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꽃심’에는 ‘꿋꿋하게 수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생명의 힘’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전주 한옥마을도 알고 보면, 전주 사람들이 꽃심으로 피워낸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을사늑약 이후 대거 이주하게 된 일본인들은 1930년대를 전후해 마구잡이로 세력을 확장했다. 풍남문 서쪽에 일본식 건물을 지으며 일본인 중심의 상권을 형성했고, 끝내는 전주 최대의 상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선비들은 풍남문 동쪽에서부터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에 오밀조밀 형성된 한옥마을에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내고자 했던 굳건한 정신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학인당’은 한옥마을 본연의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이자, 민가 중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궁중 건축 양식의 멋까지 느낄 수 있다. 당대를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모이던 우리나라 최초의 판소리 공연장이었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구성원들의 숙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원의 연못 하나에도 나라를 잃은 슬픔과 국권이 회복되기를 바란 선인들의 소망이 서린 이곳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예향의 고장 전주의 멋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전주 한옥마을의 나무와 기와, 흙담 사이를 거닐면 그 속을 걷고 있는 나 자신마저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아름답다는 말이 품은 의미가 결국 아(我)답다, 나답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나라와 민족의 정신을 간직한 전주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이 더 커다랗게 와닿을 것이다.



AMPEL-MANNCHEN

**베를린의 마스코트가 된 신호등맨
암펠만**

베를린에 가면 여행자들이 반드시 구입하는 기념품이 있다. 바로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암펠만 소품. 신호등을 뜻하는 암펠Ampel과 남자를 뜻하는 멘헨Mannchen의 합성어로 지금은 암펠만이라 불리는 이 신호등맨 캐릭터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를린의 마스코트다.

암펠멘헨은 1961년 동독 베를린에서 교통인지 심리학자 카를 페글라우Karl Peglau가 사람들이 좀 더 신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고안한 캐릭터다. 신호등 속 인물을 보다 커다랗고 친근하게 표현한 이 디자인은 동독 사람들이 신호를 준수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암펠멘헨 또한 철거되기 시작했다.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동독 출신 사람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사회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서독의 디자이너 마르쿠스 헥하우젠Markus Heckhausen은 암펠멘헨 구출에 나섰다. 1996년, 폐기된 신호등을 수거해 제작한 암펠멘헨 조명을 사람들 앞에 선보인 것. 암펠멘헨 조명은 동독의 분위기를 그리워하던 이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사람들은 일상 속 마지막 동독의 상징인 암펠멘헨 남기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독일 정부는 1997년 구 동베를린 지역에 암펠멘헨을 남겨 두라는 결정을 내렸고, 나아가 서베를린의 노후된 신호등 또한 암펠멘헨으로 교체했다. 여전히 베를린 곳곳에서 암펠멘헨을 만날 수 있는 이유다.

통일 독일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품은 암펠멘헨은 베를린 전체를 상징하는 브랜드 암펠만으로 거듭났다. 커다란 두 손으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독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베를린의 친구가 된 신호등만. 암펠만은 오늘도 베를린 사람들의 일상에 동행하고 있다.



올로를 넘어 나만의 지혜로운 행복으로

2017년 트렌드 키워드인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는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탄생시키며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의 성공과 지금의 행복 사이에서 방황한다. 올로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행복,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미래의 성공과 지금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생각은 유흥인 걸까? 올로라는 키워드를 통해 진정한 나만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글. 김경일

올로, 그 진정한 의미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올로(YOLO) 라이프를 말씀하신다. 올로는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로, 막막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철학이다. 그래서 올로족은 내 집 마련보다는 자기 계발과 취미에,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밥과 혼술로 대변되는 자기만의 시간과 욕구 총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껴야 할까? 필자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 유학 시절, 주말은 물론이고 명절인 추수감사절에도 연구실에서 살다시피하면서 공부와 연구에 몰두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이 그러는 것처럼 '좋은 미래'를 위해서 감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지도교수가 잠시 필자를 불러 나지막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경일,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보내는 몇 년

의 시간도 네 인생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시간이야."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들었던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지도교수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 소중한 가치를 잊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올로의 의미처럼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려준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쾌락을 허생시킬 줄 아는 지혜와 현재의 행복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잘 구분하라."

무슨 이야기인가. 주위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된다. 오직 성공만 보고 달려갔는데 무언가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순간, 자신의 주위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 말이다.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맞는 생각이다. 하지만 포기해야 하는 무언기가 가족, 연인 혹은 친구이고, 해야 하는 무언가가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한 달, 1년, 10년과 같이 완전히 다른 길이의 시간에 대해 동일한 계획, 관점, 혹은 가치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든 종류의 시간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 이런 착각과 오산이 생겨나는 것이다.

접근동기와 회피동기에서 찾은 지혜로운 행복
성공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을 위해 하루 정도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는 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 친구와의 행복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계발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에도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오늘의 계획에서는 잠시 뒤로 밀리더라도, 1년의 계획, 혹은 10년의 계획과 같이 긴 시간의 범위 내에는 소중한 이들과의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계획과 10년의 계획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하루, 한 달, 1년, 10년의 계획

을 각각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욕망이 있다. 바로 접근동기에 의한 욕망과 회피동기에 의한 욕망이다. 접근동기에 의한 욕망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다. 회피동기에 의한 욕망은 그 반대다. 내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무언가를 막아내고 싶은 욕구다. 닥친 일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오늘의 계획을 문제없이 실행하는 것은 회피동기에 의한 욕망에 적합하다. 하지만 일과 가족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대상이며 접근동기에 근거한 비전이 만들어져 있어야 할 대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한 가지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가 아니다. 오늘, 아니 더 나누어서 앞으로의 한두 시간 동안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서는 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해야 한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잘 막아내고자 하는 회피동기로 오늘 하루를 잘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접근동기를 통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 삶의 중간중간에 녹여 내야 한다.

올로족을 하루하루를 흥청망청 놀며 보내는 사람들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올로족 또한 집, 노후, 큰 성공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비빔밥 한 그릇을 제대로 만들려고 해도 채소, 달걀, 밥, 고추장 등 다양한 재료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방대한 우리의 인생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올로는 '때로는 그렇게 행동해 보고 살아 보라'는 일종의 추천이지 '그렇게만 살거나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계획에는 회피동기를,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위한 계획에는 올로의 관점, 접근동기를 부여해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지혜로운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히 때 한 번 사는 나의 삶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글쓴이 김경일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국내에서 훈하지 않은 정통 인지심리학자다. 인간의 기본적 고민을 유쾌하고 명쾌하게 풀이하며,『지혜의 심리학』,『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등의 책을 썼다.



메시지를 품은 캐릭터, 감동을 선사하다

자신만의 캐릭터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한 사람들. 베아트리스 포터와 이도영은 고유한 정신이 담긴 이미지로 세상에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지닌 재능으로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모범을 제시했으며, 한국 만화의 출발을 이끌었다. 두 인물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가치는 삶의 기준이 점점 물질적 풍요로만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빛난다. 글. 김성훈 일러스트. 민지홍



자연친화적 창작자

베아트리스 포터Beatrix Potter는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인물이다. 부유한 집 안에서 태어났으나 여성에게 공교육이 허락되지 않았던 19세기 후반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베아트리스 포터
Beatrix Potter

여 있던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의 땅을 사들였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곳을 지켜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결과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은 한 경향이 이후 그녀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그녀가 1902년에 첫선을

보인『피터 래빗』시리즈는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그녀는『피터 래빗』의 수익으로, 당시 무분별한 개발 위협에 놓

여 있던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의 땅을 사들였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곳을 지켜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결과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은 지금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김성훈 평론가는 만화를 접두어로 삼는 다양한 일을 해 왔다. 저서로『만화 속 백수 이야기』,『한국만화비평의 선구자들』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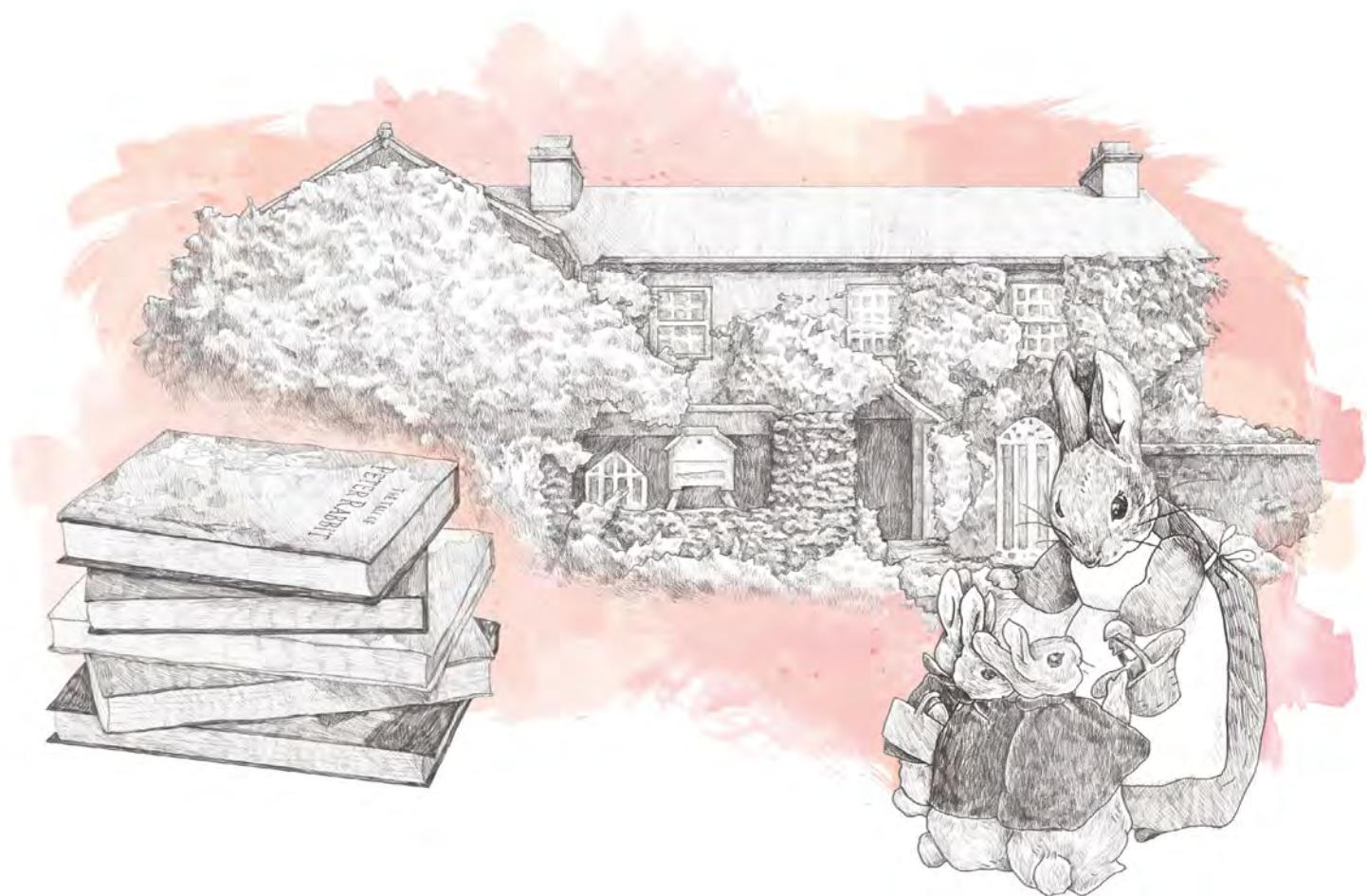


한국 만화의 선구자

이도영
李道榮

관재貫齋 이도영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근대적 개념의 만화를 선보인 인물이다. 1909년 6월 2일에 창간된『대한민보大韓民報』에 '삽화揮畫'라는 타이틀의 한국 최초 만화를 발표했고, 이후 1910년 8월 31일 일제에 의해 신문이 강제 폐간될 때까지 꾸준히 작품을 연재했다. 그의 작품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오늘날 한 컷짜리 신문 만평에 견주어

도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일제의 내정 간섭과 민족 반역자들의 비열한 행위를 만화적 기법을 활용해 풍자함으로써 당대 독자들에게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시대의 부조리와 민족적 아픔을 새로운 양식에 담아냈던 그의 작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을 선사한다.



동물 캐릭터에 깃든 지혜와 교훈

1866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한 베아트릭스 포터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과 보내게 되었고 여름이면 부모님을 따라 조용한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다. 그녀의 자연친화적인 작품 세계는 이러한 어린 시절 경험으로부터 힘입은 바가 크다.

그녀의 대표작『피터 래빗』시리즈에는 토끼를 비롯해 고양이, 달람쥐, 돼지 등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동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귀엽고 양증맞은 외모의 동물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솔직하고 진솔하기에 더욱 무게감을 지닌다. 가령 도토리를 얻기 위해 올빼미에게 예의를 다하는 달람쥐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처세술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자식을 보살피고 걱정하는 토끼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연의 정서를 연결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되어 독자들의 가슴에 스민다. 때로는 흐뭇한 웃음을, 때로는 진지한 사색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녀의 작품은 어린이를 넘어 성인들에게까지 평온한 마음과 지혜로운 교훈, 한결같은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100년 후에도 변치 않는 보편의 가치

베아트릭스 포터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고민한 아티스트였다. 그녀는 출판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피터 래빗』시리즈의 배경인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 산업화와 개발로 인해 파괴될 운명에 처했던 그곳의 환경은 그녀의 노력 덕분에 자연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녀의 유언에 따라 여전히 100여 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했던 그녀의 일대기는 영화 <미스 포터>(2007)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 실사와 애니메이션 결합된 영화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는『피터 래빗』시리즈는 1902년에 첫 출간되어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누적판매량은 1억 부가 넘는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의 작품이 그저 한때 인기 있던 동화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고전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인다. 나아가 그녀의 동물 캐릭터들은 현재 의류, 문구류 등 다양한 일상 속 물품에 담겨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세상에 나온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창조한 캐릭터와 이야기 속에 인류와 자연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면 자연을 맑은『피터 래빗』과 그녀의 삶이 잔잔하게 그려진다.



새로운 양식에 담아낸 시대의 아픔

1884년에 출생해 1933년에 타계한 이도영은 10대 시절에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조석진, 안중식 등으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았다. 서화협회(書畫協會) 창립 멤버로 활동한 그는 서화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할 정도로 전통 화법에 능했을 뿐 아니라 1900년대에는 국민교육회, 대한자강회 등에서 항일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그의 이름은 한국 만화사에서 두드러진 의미를 지닌다. 대한자강회가 대한협회로 바뀐 후 대한협회에서 「대한민보」를 창간했는데, 이때부터 만화를 연재하며 한국 만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기 때문이다. 1909년 6월 2일 자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는 오늘날 한국 만화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연미복을 입고 수염을 기른 신사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자체로 '근대'를 지향하는 동시대 흐름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사 캐릭터의 입을 빌려 「대한민보」의 창간 목적과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마치 쏟아내듯 나열해 놓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한 컷짜리 시사 만평이 추구하는 압축적인 주제 묘사 방식과도 닮았다. 이처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 양식을 활용한 이도영의 '삽화'는 한국 만화의 효시가 되었다.

다양한 캐릭터로 승화시킨 풍자 정신

한국 만화의 시작점이라는 형식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도영의 작품에 담긴 풍자 정신이다. 그는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를 원승이로 묘사해 조롱하거나 그들의 비열한 행태를 백성을 물어뜯는 개로 표현해 대중의 울분을 위로했다. 또한 종 대신 봇을 들고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을 통해 무력보다 이성이 필요한 시대임을 역설했으며,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뱀에게 잡아먹히는 두꺼비의 형상으로 비유해 보임으로써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하며 어루만졌고, 당대 현실에 대한 신랄한 자기반성을 요구하기도 하며 민중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통렬한 풍자적 기법과 강렬한 메시지로 인해 자주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만화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먹칠이 된 채 발행된 신문은 일제에 향거한 그의 작품이 지닌 단단한 정신을 증명해 보인다.

이도영으로부터 출발한 한국 만화의 역사는 지난 2009년에 10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옛 대한민보 자리에 최초의 한국 만화인 그의 작품 '삽화'를 본떠 만든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다. 그의 작품에 담긴 미학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곁에서, 예민한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한 그는 한참 동안 바깥 풍경을 주시했다. 관찰을 통해 사물과 현상이 영감을 건네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래 관찰하고 생활과 생각을 비틀며, 다르고 낯설고 나다운 글을 쓴다는 그는 아주네트웍스의 이호인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며 '사람'이라는 단어를 남겼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을 남길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카피와 책, 그리고 국민이 광고주인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영원한 혁신 카피라이터로.

글·유재원 사진·장호

얼마 전 작가님의 새 책『꼰대 김철수』가 출간되었습니다. '꼰대를 평계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는 책'『꼰대 김철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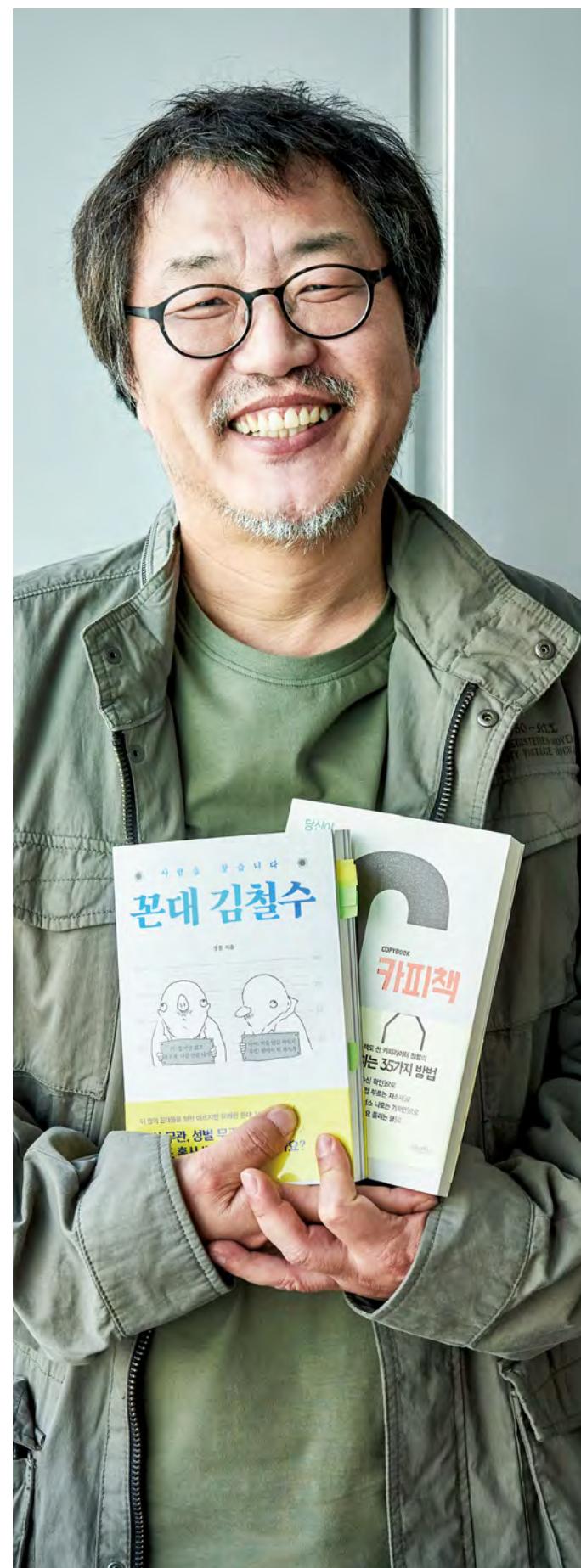
저는 지금껏 주로 짧은 에세이를 써 왔습니다. 그동안은 형태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한 글자로 된 단어에 글을 붙여 쓴 에세이도 있었고, 사전 형태로 된 에세이도 있었죠.『꼰대 김철수』는 처음으로 형태보다는 주제에 집중해 쓰기 시작한 책입니다. 제 안에 어떤 주제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꼰대 이야기를 쓰면 재미있겠다. 답답하던 사람들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책을 쓰다 보니 결국엔 제가 꼰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방향이 바뀌었어요.『꼰대 김철수』는 제가 저 자신에게 내리는 처방전입니다. "너 꼰대가 안 될 순 없겠지만 제발 천천히 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책인 거죠.

저희 같은 직장인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꼰대가 되는 것을 경계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느냐, 남에게 고정하느냐의 차이가 꼰대냐, 아니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꼰대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잘 안 보고 남만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타인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속도를 늦추려면, 남보다 나를 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면 됩니다. 훈수를 두려다가도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져서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먼저 들여다 보면 꼰대 같은 행동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남을 지적하기 바쁜 꼰대가 세상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원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꼰대인지라 참 어려운데요(웃음) 저를 포함한 모든 꼰대들에게 "거울 좀 들고 다닙시다!" 하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꼰대 김철수』는 카피라이터 정철의 12번째 책이다. 타인에 대한 간섭과 지적으로 가득한 세상, '센스 있는' 꼰대 정철이 던지는 유쾌한 일침에 귀 기울여 보자.



결국 핵심은 ‘나답게’예요.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해 나가는 것. 자기만의
삶의 모토를 세우고 지향하다 보면 결국
나답게 표현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관찰하는 습관은 아마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30년 동안 카피라이터로서 늘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나요?

발상의 전환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오답이에요. 정답은 10초만 검색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답은 틀린 답이라는 의미의 ‘오답’일 수도 있지만 ‘오!’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답, ‘오! 답’일 수도 있어요. ‘오! 답’을 찾으려면 생활을 비틀어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을 가만히 두면서 생각이 말랑말랑해지기를 바라면 안 되고, 생활이 먼저 말랑말랑해져야 해요. 가끔은 나를 낯선 시간, 사람, 공간 속으로 데려가 보세요. 출근할 때도 매일 똑같은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비틀어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날 기회가 더 자주 생기고, 그러면 생각도 말랑말랑해져요. 생활과 생각을 비틀며 늘 의심과 물음표를 던져 보세요.

그래도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이 나오!” 생각은 다 나죠. 단, 그게 9~10점짜리냐, 3~4점짜리 생각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늘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빨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면,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 빨대가 지겨워서 ‘였다 하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아이디어를 툭 던져 줘요. 글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쓰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색다른 아이디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 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큰 용기가 됩니다. 작년에 출간하신『카피책』의 모토도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죠. 독자가 카피라이터나 카피라이터 지망생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카피라이터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카피 써서 커피도 마시고 양말도 사 신고 했으니까, 카피라이터 후배들을 위해 책 한 권은 남기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쓰다 보니 문득 ‘왜 꼭 카피라

이터만 읽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나 글에서 도망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지만 지금은 SNS,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짧은 글쓰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방법은 글을 통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니까요. 그 사람의 글이 그 사람의 표정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시대에, 누구나 카피라이터처럼 글을 쓰고 말을 걸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에 많이 들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좀처럼 피할 수 없어진 자기 표현의 순간에 참고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이 내 책을 살까?’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요, 카피라이터가 쓴 에세이가 다르고 낯설기 때문이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나답게’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상 다르게, 낯설게를 지향하다 보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다운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구나 자기만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 한 줄을 쓰든, 책 한 권을 쓰든 어떤 모토를 가지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살면서, 연애하면서, 술 마시면서, 글 쓰면서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해 나가는 것. 자기만의 삶의 모토를 세우고 지향하다 보면 결국 나답게 표현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금까지의 작업 중 가장 정철다운 글을 꼽아 주신다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주저 없이 ‘인생’이란 글을 내밉니다.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하는 글이에요. 좋지 않나요?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인생 대단한 것 아니다. 이런 얘길 하고 싶어서 쓴 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자꾸 잊어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허겁지겁 허둥지둥 살다가 놓치는 거죠. 이 글에서 ‘친구’를 ‘돈’이나 ‘성공’으로 바꿔서 읽어 보세요. 약간 씹쓸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놓치기 쉬운, 사람이라는 가치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책을 덮었을 때, 카피를 읽었을 때 사람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카피라이터 정철이에요. 지금도 나중에도요. 작가 정철은 카피라이터가 나에게 준 작은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철은 국민이 광고주인 카피라이터다.” 너무 황송한 얘기지만, ‘아, 그런 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먼 미래에 그런 얘길 듣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사임당,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부여한 세상의 프레임은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일부분만을 보게 만든다. 현모양처의 대명사나 다름없었던 신사임당을 재해석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다. 드라마, 전시, 책 등 다양한 매체로 재조명되는 사임당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그녀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 흥아미



| EXHIBIT |

서울미술관 <사임당, 그녀의 화원>전

작품을 중심으로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화가로서의 사임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6월 11일까지.

사임당, 그녀에 대해 물랐던 것들

오죽헌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주택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집이 이토록 추앙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고택의 호젓한 매력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귀를 기울이면 조선 시대 최고의 여류 화가인 신사임당과 대학자 율곡 이이에 관한 역사 속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리고 자녀를 키운 흔적을 좇아 걸음을 하다가, 남편 이원수에게 남겼다는 유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자녀를 7남매나 두었는데 또 무슨 자식을 더 낳아서 『예기(禮記)』에서 가르친 훈계를 어기시겠습니까.” 문득 웃음이 났다.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지아비에게 서슴없이 할 말을 하고도 남았을 사임당의 생전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단순히 현모양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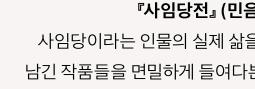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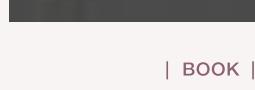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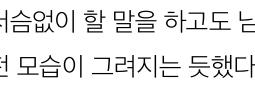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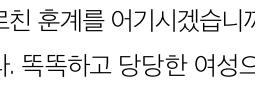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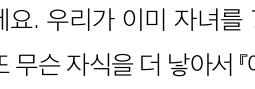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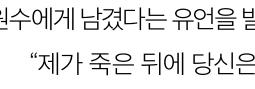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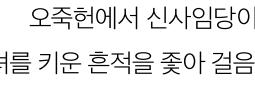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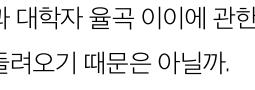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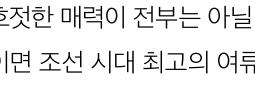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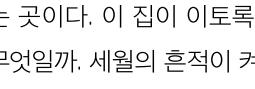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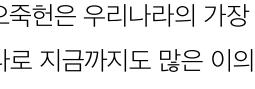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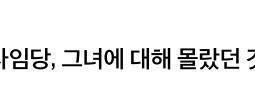
로만 알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게 아닐까.

사실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위인 가운데 현대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성임에 틀림없다. 율곡 이이라는 대학자를 키워 낸 현명한 어머니, 무능한 남편을 잘 다독이고 내조했던 어진 아내, 천재적인 재능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여류 화가. 48세를 일기로 타계한 짧은 생

에 비하면 그녀가 남긴 일화와 유산은 너무나

도 커다랗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사임당의 생애와 삶의 흔적을 제대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다양 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정옥자 교수의 『사임당전』(민음사)이 출간되었다. 후세 사람들에 의해 덧씌워진 이미지를 잠시 걷어 내고, 그녀의 실제 삶이 어땠는가를 철저한 실증을 통해 그려 낸 책이다. 부유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났지만 한량 남편



Left Handed

Left Handed : 원손잡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제가 안쪽에 앉을게요!”를 외치는 인물의 정체는? 바로 원손잡이 A씨. 원손으로 식사를 하는 그를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상사가 한 마디 던진다. “우리 팀에 예술가가 있는 걸 몰라봤네!” 식사 시간마다 발생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원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우뇌가 발달하므로 예술 감각이 뛰어날 것이라는 편견과도 맞서야 하는 등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원손잡이들은 여전히 생활 속 불편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니얼 에이브러햄 Daniel Abraham 교수는 현대에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를 협동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작업이 대부분의 사람을 오른손잡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특정 작업을 할 때 도구를 함께 사용하려면 같은 방향의 손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원손잡이도 오른손잡이로 바뀐다는 것. 인류가 집단을 이루 협동할 일이 많아 질수록 같은 쪽 손을 사용하도록 진화했다는 논리다. 이 이론에 따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한 사회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 진화해 온 결과가 다름을 지닌 원손잡이들을 소수의 특수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더 큰 소외를 낳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평온한 점심시간, 맛있게 식사를 하려는 와중에 자꾸만 옆자리 원손잡이 동료와 팔이 부딪힌다면?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를 위한 배려의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소외와 편견의 대명사, 원손잡이와 관련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독자 업서에 사연을 보내 주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Now + Moment

라이프스타일

봄이면 불쑥
새로운 길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땐 주저하는 대신
행복을 기대하며 걸어가 보세요

어느 날 불쑥
시칠리아로 떠나 파스타를 공부하기 시작한 기자가,
시와 그림에 빠지게 된 궁중요리 연구가가,
와인을 담아 마시기 시작한 둉근 병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진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이
살며시 고개 드는 풍경을 만나 보세요



파스타의 고향 시칠리아가 선사하는 봄의 성찬

Left 
Left Hand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제가 안
로 원손잡이 A씨. 원손으로 식사를 하
마디 던진다.” 우리 팀에 예술가가 있는
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므로 예술 감각이 뛰어날 것이라는 편견
달하는 원손잡이들은 여전히 생활 속 풍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니얼 에이브
손잡이가 많은 이유를 협동이라는 사호
함께 일하는 협동 작업이 대부분의 사
정 작업을 할 때 도구를 함께 사용하려
문에 원손잡이도 오른손잡이로 바뀐다
질수록 같은 쪽 손을 사용하도록 진화
더 많은 사람이 한 사회에서 함께 도우
닌 원손잡이들을 소수의 특수 집단으
발견하게 된다.

평온한 점심시간, 맛있게 식사를 하
와 팔이 부딪힌다면? 이제는 다른을 인
록 그를 위한 배려의 방법을 고민해 보아

소외와 편견의 대명사, 원손
독자 업서에 사연을 보내 주신 분들

작열하는 태양과 넓고 푸른 지중해를 품은 섬, 웅장한 문화유산은 물론
<시네마천국>, <일 포스티노>로 대표되는 명화의 고장.
무엇보다 다양한 맛과 매력을 지닌 파스타의 고향.
시칠리아가 봄을 담은 황홀한 성찬을 선물한다. 글·박찬일 세프

Sicilia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시칠리아는 독특하면서도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 Michiluzzu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시작되는 곳

벌써 18년 전의 일이다. 나는 견습 요리사로 시칠리아 땅에 떨어졌다. 요즘은 한국인 관광객이 더러 있지만, 당시만 해도 불모의 땅이었다. 내가 일하던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수가 나를 ‘보러’ 올 정도였다. 이상한 아시아인을 구경하려. 그렇게 낯선 존재였던 나는 여름 한낮의 온도가 50°C까지 올라가는 땅, 마피아와 식민 경영, 외지인의 치열한 패권 전투가 벌여졌던 피의 섬, 나른한 남부의 서정이 깃든 고장. 무엇보다 파스타의 고향인 시칠리아에서 3년간 머물며 파스타를 배우고 맛보고 만들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섬, 시칠리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 가깝다. 쾨발트빛 지중해와 쾨랄리아 같은 내륙으로 가는 시간이 훨씬 길 정도. 그래서 시칠리아라 하면, 키 작고 얼굴 까무잡잡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시칠리아에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푸른 눈에 금발, 큰 키를 지닌 사람들과 까만 곱슬머리의 아랍 혈통 사람들, 이탈리아적 풍모의 이들과 코가 두툼하고 높은 그리스계 용모의 사람들까지. 역사적으로 시칠리아가 수많은 세력의 패권이 물려들어 피비린내 나는 다툼을 벌였던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심지어 멀리 바이킹까지 이 땅에 상륙해 왕국을 건설한 적이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불은 수염이라는 뜻의 별명 ‘바르바

로사’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2세는 아랍 사람의 옷을 입고, 온갖 혈통의 민족을 신하로 거느린 채 정치를 펼치기도 했다.

당시 시칠리아는 중세 내륙의 분위기와 달리 자유로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따로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가능했던 일. 민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인구 중 아랍인도 많았다. 아랍인은 한때 시칠리아 땅을 점령했던 민족이자, 시칠리아에 파스타를 들여온 장본인이다. 실크로드를 휘젓던 이들의 식량이었던 마른 국수, 그것이 바로 스파게티였다. 국수는 적은 양의 물로 바로 삶을 수 있고, 여차하면 그냥 먹을 수도 있다. 빵과 달리 화덕이나 이스트가 필요 없다. 폐쇄형 오븐이 없어도 된다. 불을 피우고 약간의 열로 물을 끓이면 익는다. 나무가 별로 없는 시칠리아 땅에 최적화된 식량이었던 것. 마케로니, 베르미첼리(길다란 벌레라는 뜻)라고 불렸던 스파게티는 시칠리아는 물론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불처럼 번졌다. 시칠리아가 스파게티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문화 중개자의 역할을 떠맡았던 섬이다.

시칠리아의 땅 그리고 바다의 맛을 품은 파스타

시칠리아는 건조해 벼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다. 대신 겨울 밀이 자라기 좋다. 좋은 스파게티의 조건 중 하나는 경질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씹을 때 탄력이 있다. 시칠리아의 겨울 밀은 최고 품질로 치는 경질밀이다. 문제는 제분이었다. 말과 인력

으로 빵는 일반적인 방법과 시칠리아의 제분 방법은 조금 달랐다. 몇 해 전 시칠리아로 파스타를 취재하러 갔을 때, 옛날 나의 주방장 주제페 바로네 Guiseppe barone 씨는 나를 오래된 민속 유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물레방아에 물이 떨어져서 얻는 회전력으로 밀을 빵는 오래된 시설이었다. 시칠리아는 그렇게 제분에 성공했다. 단단하게 반죽해 국수를 뽑아 인근의 여러 나라로 수출했고, 파스타는 귀족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제 파스타는 귀족만의 음식이 아니다.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궁정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계란을 넣은 고급 수제 면을 이젠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칠리아인들은 여전히 생활 속에서 전통의 파스타를 지켜 간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카바티 Cavatti다. 작은 벌레처럼 생긴 전통 파스타로 예전에는 많은 식당에서 직접 만들었다. 손톱으로 놀려 모양을 내야 하는 고단한 노동은 원래 시칠리아 여자들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다 만든 것

이탈리아 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시칠리아는 유럽,
아프리카, 아랍의 문화가
공존하는 섬이다



을 시장에서 산다. 이 희한한 모양의 파스타를 먹는 건 시칠리아인의 자부심이다. 오일에 버무리거나, 토마토소스를 넣어 간단하게 요리한다. 내가 떠날 때 나의 주방장은 카바티를 만들 때 쓰는 수제 틀을 하나 선물했다. 동네 금속 장인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집에 할머니가



시칠리아는 쿠발트빛 지중해와
이탈리아 남부의 서정을 품은 아름다운 섬이다
© Bert Kaufmann



없는 시칠리아인들은 이 작은 기계로 카바티를 만들어 먹는다. 밀가루를 단단하게 반죽해 틀로 내린 후 단순한 소스에 버무린다. 시칠리아의 상징 같은 리코타 치즈를 넣어 버무려도 좋고, 파르메산 치즈를 담은 라구사노 치즈를 넣어도 좋다. 카바티는 꼭꼭 씹어 먹는 파스타다. 입 안 가득 구수한 밀가루의 향이 느껴진다. 시칠리아 대지의 맛이다.

시칠리아 스파게티 중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라 노르마Alla Norma다. 웬지 노르만족의 지배를 떠올리게 하는데, 실은 시칠리아가 낳은 거장 오페라 작곡가 빈센초 벨리니 Vincenzo Bellini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 붙였다고 한다. 오페라 <노르마>는 세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래서 세 가지 재료인 가지와 토마토, 리코타 치즈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가지와 토마토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땅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태양이 작열하는 시칠리아 땅에서 아주 잘 자라서 마치 토착 식물처럼 환영받았다. 시칠리아 토마토는 즙이 줄줄 흐를 정도로 맛있고, 가지 역시 동그랗고 커다랗게 무르익는다. 시칠리아 요리사들에게 가지 자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온갖 요리에 가지를 쓰기 때문이다. 가지는 파스타는 물론이고, 전체, 메인 요리에 곁들이는 시칠리아의 대표 재료다. 리코타 치즈의 경우 리코타 두라(Ricotta Dura)라고 하는 단단한 리코타 치즈를 쓰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물렁한 리코타 치즈와는 조금 다르다. 소금을 많이 친 후 단단하게 굳힌 것으로 그것을 강판에 살살 갈아 엎는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서 구운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가지의 풍미에 토마토의 상큼함, 리코타 치즈의 부드러움이 더해진 알라 노르마는 그야말로 시칠리아 사람들의 솔 푸드다.

시칠리아 바다는 풍성한 재료를 선물한다. 오징어, 문어, 갈치, 고등어, 참치. 그중에서도 시칠리아를 상징하는 생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참치, 다른 하나는 멸치(정어리)다. 바닷가에는 여전히 엄청난 속력으로 이동하는 참치 떼를 잡는 어부들이 있다. 전통의 어업이다. 바로 참치 떼를 가둔 뒤, 작살로 찍어 올린다. 세계문화유산급이다. 그렇게 잡은 참치의 알에 소금을 쳐서 말린다. 그것으로 스파게티를 버무린다. 짜고 발효된 염장의 맛이 어우러져 폭발할 것 같은 맛을 낸다. 우리 젓갈의 맛과 비슷한 보타르가 파스타로, 시칠리아에서 짠 질 좋은 올리브유의 강렬함이 풍미를 한층 더 돋운다. 멸치(정어리)는 뼈를 대충 발라낸 후 튀기거나 오븐에 굽는다. 아니면 빵가루와 섞어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에 마늘 한 쪽을 넣고 향기롭게 구운 후 발라 놓은 살을 넣고 볶는다. 화이트 와인을 좀 넣고 알코올을 날린 후 삶은 면을 넣어 버무렸을 때의 풍부한 맛. 모두가 시칠리아 바다의 선물이다.



1. 시칠리아의 시장에는 언제나 비옥한 땅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가 가득하다

2. 미식의 삶이라 불리는 만큼 아의 테이블에서 다채로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3. 카바티는 시칠리아 전통 파스타로 손톱으로 모양을 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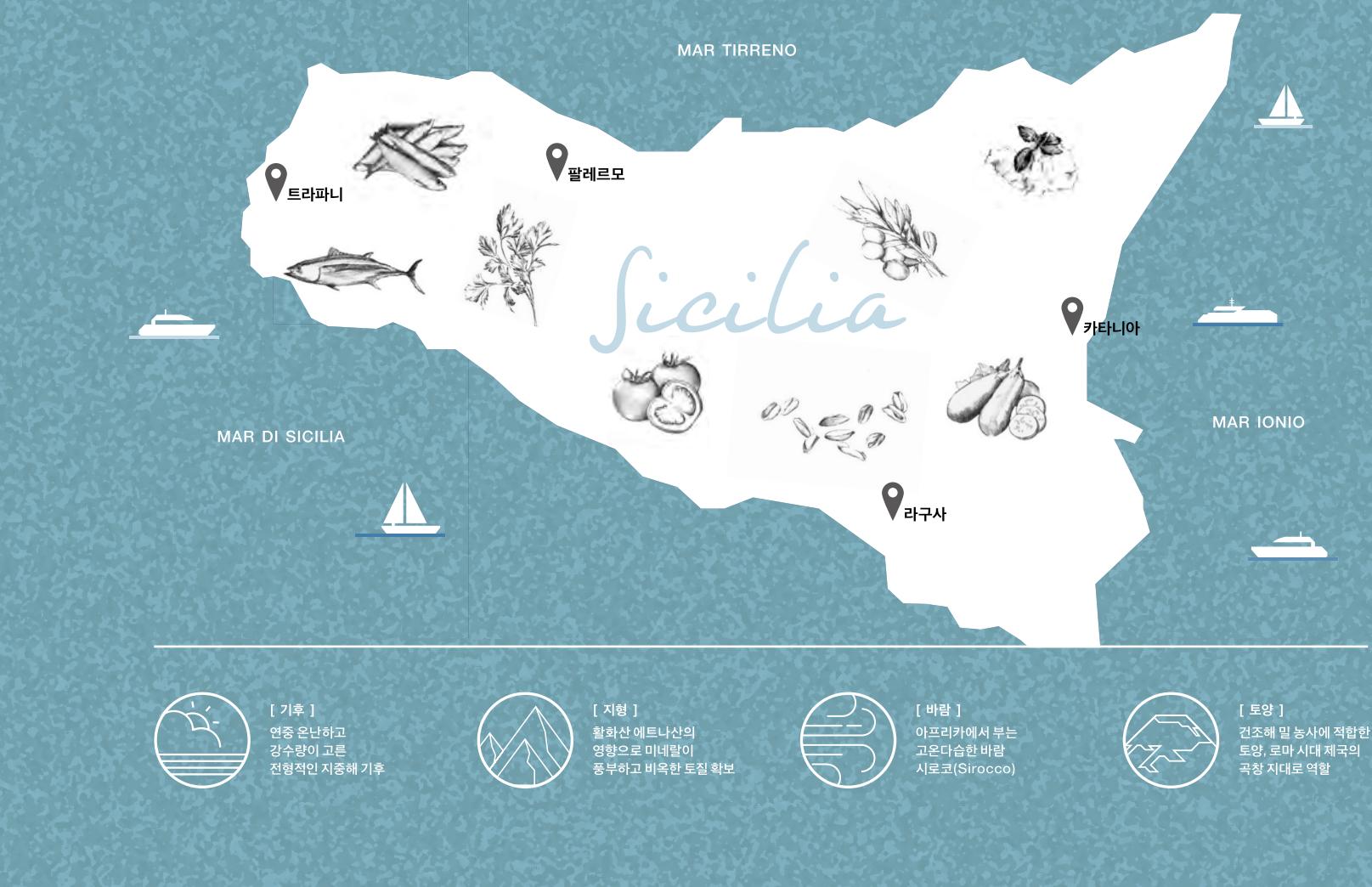


북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시칠리아 전통 요리다. 열넷 고을처럼 생겼지만 단단한 밀을 으깨 만든 짧은 파스타 중 하나로, 다양한 해물로 맛을 낸 수프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풍미가 일품이다.

시칠리아 출신의 유명 작곡가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에서 이름을 따 불인 파스타. 리코타 치즈, 가지, 토마토를 주로 사용하고 파슬리, 오레가노, 바질 같은 허브로 향미를 더한다.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전통 파스타. 원래 라구사 지역의 전통 파스타였으나 시칠리아 각 지역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있다. 구수한 밀의 맛이 잘 느껴지도록 단순하게 조리해 즐긴다.

9~11세기 시칠리아를 점령했던 아랍 요리의 영향을 받은 파스타. 신선한 정어리의 맛과 피노키에토라 부르는 허브의 신맛, 사프란과 건포도의 단맛, 짓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뿐낸다.



**와인과 디저트, 끝나지 않는 이야기**

좋은 파스타에는 그 지역의 와인을 곁들이는 게 상식이다. 처음에 시칠리아는 너무 더워서 좋은 와인 재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렬한 태양이 만들어 내는 디저트 와인은 유명했지만, 고급 와인 생산량은 적었다. 단 하나, 에트나산의 레드 와인을 빼면 말이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산은 버섯을 캐러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한여름에도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이 눈을 채취해서 꿀을 섞어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친 것이 오늘날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의 원조로 통한다. 지금도 시칠리아만의 유명한 셔벗이 있다. 바로 그라니타Granita다. 동네 아무 바에서나 그라니타를 판다. 온갖 과일즙으로 맛을 내는 디저트로 브리오슈를 곁들여 먹곤 한다.



다시 와인 이야기로 돌아오면, 에트나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다. 대신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운이 조금씩 낮아진다. 좋은 와인은 무조건 덥기만 해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밤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덥고 건조해야 좋다. 땅의 양분이 많을수록 와인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특이한 조건이 있어야 좋은 와인이 생산된다. 척박하고 낮에는 건조하고 더우며 밤에는 서늘할 것. 이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에트나산의 일부 지역이다. 이곳의 포도나무는 키가 아주 작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지도 않는다. 영양분이 적기 때문이다. 한 그루에 한두 송이의 포도만 달린다. 이렇게 농축된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바로 에트나 로소Etna Rosso라는 지역 와인이다. 이 밖에도 1980년대에 들어 시칠리아의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이용해 고급 와인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놀랍게도 세계 최상급의 와인이 탄생했다. 플라네타Planeta, 돈나 푸가타Donna Fugata 같은 전설적인 와이너리가 각광받고 있다. 이곳의 와인은 한국에도 수입되는데, 굉장히 고급품이다. 잉크처럼 진한 색깔, 대지의 특성을 말해 주는 건조하고 풍부한 향이 일품이다.

내 엄지손가락에는 작은 상처가 있다. 시칠리아에서 매일 한 상자씩의 멸치를 손질하다가 생긴 흉터다. 그 상처와 같이, 시칠리아 그리고 파스타에 대한 기억은 깊숙이 남겨져 있다. 파스타를 먹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과정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정수를 배우는 일이다. 파스타와 함께하는 시칠리아 여행이 즐거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눈부신 시칠리아의 봄, 시칠리아의 문화와 자연을 품은 파스타를 맛보며 스스로를 파스타화Pastarize 해보는 것은 어떨까.

Blooming Spring Brilliant Sicilia

시칠리아의 봄을 완성해 주는 다채로운 즐길거리

**I. 팔레르모 몬레알레 대성당**

다양한 민족이 거쳐 간 흔적이
깃든 건축물. 외관의 고딕 양식, 내부의 비잔틴 양식, 정원의 아랍 양식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천장을 가득 메운 황금빛의 모자이크 장식이 오래된 문화의 황홀한 멋을 전한다.

**II. 카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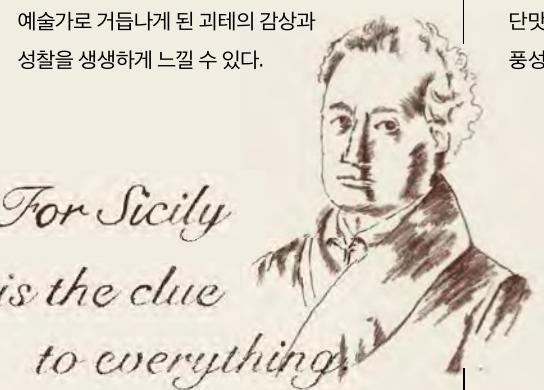
시칠리아 국민 디저트로 '대통'이라는 뜻을
지닌 과자. 관처럼 생긴 튜브 모양의 빵에 부드럽고
달콤한 리코타 치즈를 듬뿍
채운 사랑스런 간식.

**III. 아란치니**

시칠리아의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주먹밥을 뒤긴 것
이다. 이탈리아어로 '작은 오렌지'라는 뜻을
지닌 귀엽고 맛있는 요리.

**IV. 이탈리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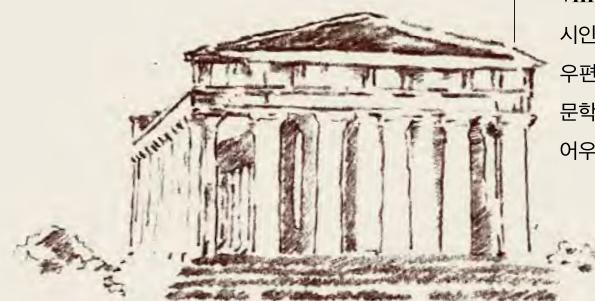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이탈리아 여행기.
이탈리아의 자연과 유적을 통해 위대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된 괴테의 감상과
성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V. 파시토**

시칠리아의 화산섬 팬탈레리아의 진주라
불리는 디저트 와인. 진하게 농축된 잼의
단맛 같은 달콤함과 과일 향의
풍성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VI. 시네마천국**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명화.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 토토와 늙은 영상기사 알프레도의 우정이
시칠리아의 작은 섬을 배경으로
따뜻하게 펼쳐진다.

**VII. 아그리젠토 신들의 계곡**

기원전 5~6세기 그리스 황금시대에
건설된 웅장하고 신비로운 도리아식 신전으로
신들이 머물렀던 고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IL POSTINO



마음을 질주하게 하는 모터쇼 이야기

형형색색 반짝이는 수천 대의 새 차와 미녀들,
최첨단 자동차와 슈퍼카가 어우러진 광경. 모터쇼는 이제 단순히
신차를 선보이는 행사가 아니다. 자동차 문화와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장이다. 세계 주요 모터쇼의 시작과 변천은 물론이고
관전 포인트까지. 마음을 질주하게 하는 축제, 모터쇼 이야기에 귀기울여 보자.

글, 사진: 김한용 <모터그래프> 편집장

해외 모터쇼의 첫 경험은 10년 전 제네바에서였다. 만약 자동차 마니아를 위한 천국이 따로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계의 모터쇼, 그들은 어떻게 시작되고 변천되어 온 걸까.

FRANKFURT vs PARIS | 최초를 건 자존심 대결

1886년 독일인 카를 벤츠는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이를 만든 본인조차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고틀리프 다임러도 앞다퉈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이 물건들은 독일에서 수년간 판로를 찾지 못했다. 정작 이 차가 팔리기 시작한 곳은 프랑스였다. 독일에서는 자동차를 “볼품없고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폄훼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남들과 다른 것이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당시 마차가 다녔던 파리의 도로에는 말 뚱과 오줌이 가득했는데, 프랑스인들은 배설물이 없는 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매료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차가 환경을 해치는 원흉처럼 묘사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모터쇼가 말 그대로 ‘모터 쇼’라면 해외 모터쇼는 ‘모터 전쟁 터’다. 모터쇼의 결과에 따라 어떤 회사는 박수갈채를 받았고 어떤 회사는 문을 닫았다. 여전히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같은 독일 전통 자동차 회사와 코로스나 BYD 같은 신흥 중국 자동차 회사가 한 전시장에서 죽고 사는 사생결단의 진검 승부를 벌인다. 자동차

의 역사가 충돌하고 뒤집히며 새로 쓰이는 축제. 별들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계의 모터쇼, 그들은 어떻게 시작되고 변천되어 온 걸까.

자동차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세계 최초 모터쇼’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파리 모터쇼

조직위는 그동안 세계 최초 자동차 동호회라 할 수 있는 ‘프랑스자동차 클럽’이 1900년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주최한 ‘파리오토살롱’이 세계 최초의 모터쇼라고 밝혀 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독일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세계 최초의 모터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1907년에 시작되어 파리 모터쇼나 제네바 모터쇼보다 조금 늦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독일은 ‘기록을 찾아보니 1897년 베를린 브리스톨 호텔에서 자동차를 모아 놓고 전시회를 펼쳤으며 이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전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 프랑스는 1898년 프랑스 파리 튜일리 공원에 차를 모아 전시한 것이 파리 모터쇼의 시초라며 시작 연도를 조금 앞당겨 정통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정통성은 물론이고 규모에 이르기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는 두 모터쇼의 자존심 싸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는 독일을 대표하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프랑스에선 르노, 푸조, 시트로엥 등 자국 브랜드가 최신 차종을 내놓으며 매년 9월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GENEVA | 슈퍼카부터 친환경 자동차까지

모터쇼가 재미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국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모터쇼가 제각각 자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다면 제네바 모터쇼는 스위스의 영세증립국이라는 입장을 십분 활용해 인접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세계 최고 모터쇼 중 하나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05년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파리 모터쇼에 뒤지지 않는다.

제네바 모터쇼는 매년 3월에 개최된다. 유럽 대륙에서는 가장 먼저 열리는 모터쇼이기 때문에 한 해의 유럽 자동차 시장 동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비해 규모는 좀 작지만 구조가 단순해 이동이 쉽고 아기자기하며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그나마 ‘친절한’ 모터쇼로 손꼽힌다. 대형 완성차업체가 없는 나라에서 치르는 주요 모터쇼라는 점도 독특하지만, 출시되는 차종의 면면도 대단하다. 부자들이 모이는 도시다 보니,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와 비슷해 파가니, 코닉세그 같은 세계적 슈퍼카 제조사는 항상 신차를 내놓는 장소로 제네바 모터쇼를 택한다.

1. 밝은 표정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2017 제네바 모터쇼 스태프
2. 3월 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17 제47회 제네바 모터쇼 현장
3.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벤츠가 미래 모델을 공개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 2010 파리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친환경 자동차

CCKorea / CC BY Dave Pinter



1. 2017 서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올 뉴 디스커버리
2. 2017 서울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열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3. 전기차를 향한 재규어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재규어 I-TYPE

또한 청정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를 소개하는 데도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최근 들어 슈퍼카와 고급 SUV가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고, 디젤 게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제네바 모터쇼의 역할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랜드로버가 주력 고급 SUV가 될 렌지로버 벨라를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점이나 재규어가 전기차 I-PACE 콘셉트카를 유럽 최초로 공개한 것도 샤샥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7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한, 강렬한 신규 색상 포톤 레드를 적용한 재규어 I-PACE 콘셉트카는 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듀얼 콤팩트 모터를 적용해 4개의 바퀴를 모두 구동시키며, 액체 냉각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어 400마력의 출력과 71.4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I-PACE 콘셉트카는 영국을 대표하는 고급 차 브랜드 재규어의 존재감을 알렸다.

정지된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4초. 이미 양산형이 생산 중인 이 모델은 올해 말 출시되어 2018년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DETROIT & TOKYO | 추락하는 위상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생산국이었다.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은 땅을 이용해야 했으므로 과거부터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대단했다.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터를 잡으면서 GM, 크라이슬러라는 Big 3 기업이 이곳에서 자동차의 메카를 일궜으니, 디트로이트에서 세계 최대 모터쇼를 여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줄도산으로 인해 위상이 떨어진 상태다.

그나마 최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회복세를 타면서 디트로이트

모터쇼 또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쿄 모터쇼는 아직 혼란 속에 있다. 일본의 경제 침체와 청년층의 자동차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 운까지 좋지 않아 2009년에는 개최 직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고, 2011년에는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문제로 다수의 해외 자동차 회사가 불참했다. 규모가 축소된 두 모터쇼가 어떻게 다시 주요 모터쇼 자리로 되찾을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BEIJING | 떠오르는 신흉 강자

요즘 자동차 기자들은 다른 모터쇼는 안 가도 중국 모터쇼는 꼭 찾기는 분위기다.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기자들까지도 취재를 위해 중국을 찾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룬다. 중국의 모터쇼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격년으로 개최된다. 짹수 해에는 베이징 모터쇼가, 홀수 해에는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므로 매년 중국을 방문하는 인파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프레스데이 첫날에만도 수만 명의 인파가 들이 닥치는데,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는 행사장은 그 면적이 축구 경기장 49개 크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원이 와도 꽉 차지는 않는다.

한때 베이징 모터쇼는 자동차 곁에 선 여성 모델들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세계의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는 차량 곁에 여성 모델을 세우는 걸 아예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약 10년 사이에 큰 발전을 이뤄, 세계적인 모터쇼로 자리매김해 가는 모습은 매년 새롭다. 이제 중국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을 잊으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이 기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니, 중국 모터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EOUL & BUSAN | 무궁무진한 가능성

1995년 첫 개최된 서울 모터쇼는 1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매년 공간 규모는 늘려 가고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수입 브랜드들이 불참하면서 질적 규모는 축소되었다.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는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개최된다. 참가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위해 매년 모터쇼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시장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적고 국토의 면적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의 위치는 결코 낮지 않다. 세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모터쇼에 쏟아지는 세계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소비자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키워 가고 있으니 모터쇼가 발전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자동차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올해 2017 서울 모터쇼는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꾸민 이번 행사에 국내 9개, 수입 18개의 총 27개 세계적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했다. 전시 차량 대수는 300여 대에 달하며 신차는 42종이 공개되었다. 특히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열정’을 주제로 브랜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m²에 달하는 전시장을 마련해 고객을 맞았다. 한국 최초로 공개한 랜드로버 렌지로버 올 뉴 디스커버리는 사전 계약에 돌입,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미래 지향적 럭셔리 중형 SUV라 불리는 렌지로버 벨라와 전기차 분야에 대한 재규어의 노력을 대변하는 전기 레이스카 재규어 I-TYPE 역시 한국에서는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미래지향적 퍼포먼스와 우아한 품격은 2017 서울 모터쇼 제2전시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다른 모터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마 국제 모터쇼

세마 국제 모터쇼는 매년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튜닝 카 박람회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로, 자동차 부품 신제품과 그 제품으로 만든 프로젝트 데모카가 한데 모여 미래 자동차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동차 마니아들의 축제다.

<https://www.semashow.com/>

독일 에센 모터쇼

매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열리는 에센 모터쇼는 유럽 최고의 이색차 전시회다. 세마 국제 모터쇼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콘셉트카, 튜닝카, 이색카, 쇼카 등 색다른 자동차를 선보인다. 세계 자동차 튜너들이 튜닝카에 담아 낸 색다른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다.

<https://www.esessen-motorshow.de>

밥하는 여자,
엄마 그리고 봄

요리 연구가
한복선의
여가식미
餘暇食美



2017년 3월의 어느 봄날, 한옥 지붕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도 살포시 내려앉았다. 전화 한 통에 마중 나와 나무며, 돌담이며 궁중음식연구원 곳곳을 차근차근 설명해준 덕에 뜻밖의 투어를 즐기고 특유의 유쾌한 입담 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졌던 날. 엄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던 요리 연구가 한복선과의 봄날을 담은 인터뷰. 글: 김희란 사진: 장호

궁중 음식 연구가인 고(故) 황혜성 교수의 차녀로 태어난 한복선은 음식을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이며, 음식 시를 쓰는 시인이자 민화를 그리는 작가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다양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연구가다. 조선의 마지막 주방 상궁 한희순 님을 찾아가 궁중 음식을 배웠던 황혜성 교수 곁에서 한복려, 한복선, 한복진 세 자매는 궁중 음식을 접하고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걷게 되었다. 한복선은 먼저 '궁중음식기능보유자'인 황혜성 교수와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언니(한복려)는 궁중음식연구원에서 교육자로서 기능 전수를 책임지며 엄마의 뒤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생활 경험과 한국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TV 방송에 출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세워 궁중 음식 대중화에 힘쓰고 있어요. 셋째(한복진)는 대학교수로 전문적인 연구와 인재를 발굴하는 일을 합니다. 엄마의 큰 뿌리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식문화를 알리고 있지요."

한복선은 세 자매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엄마가 홀로 하시던 일을 나누어 하니 다를 일이 없고, 우애가 좋다면 칭찬 일색이다. 인터뷰 당일 아침에도 세 자매가 모여 모처럼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세 자매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졌다며 아쉬워했다. 그리고 문득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살아생전에 한 번도 칭찬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키우면서 어쩌면 그렇게 훌륭했어?', '엄마는 참 예뻐, 오늘 어쩜 이렇게 예쁠까' 칭찬 한 번 못한 게 죄송했어요. 엄마도 여자인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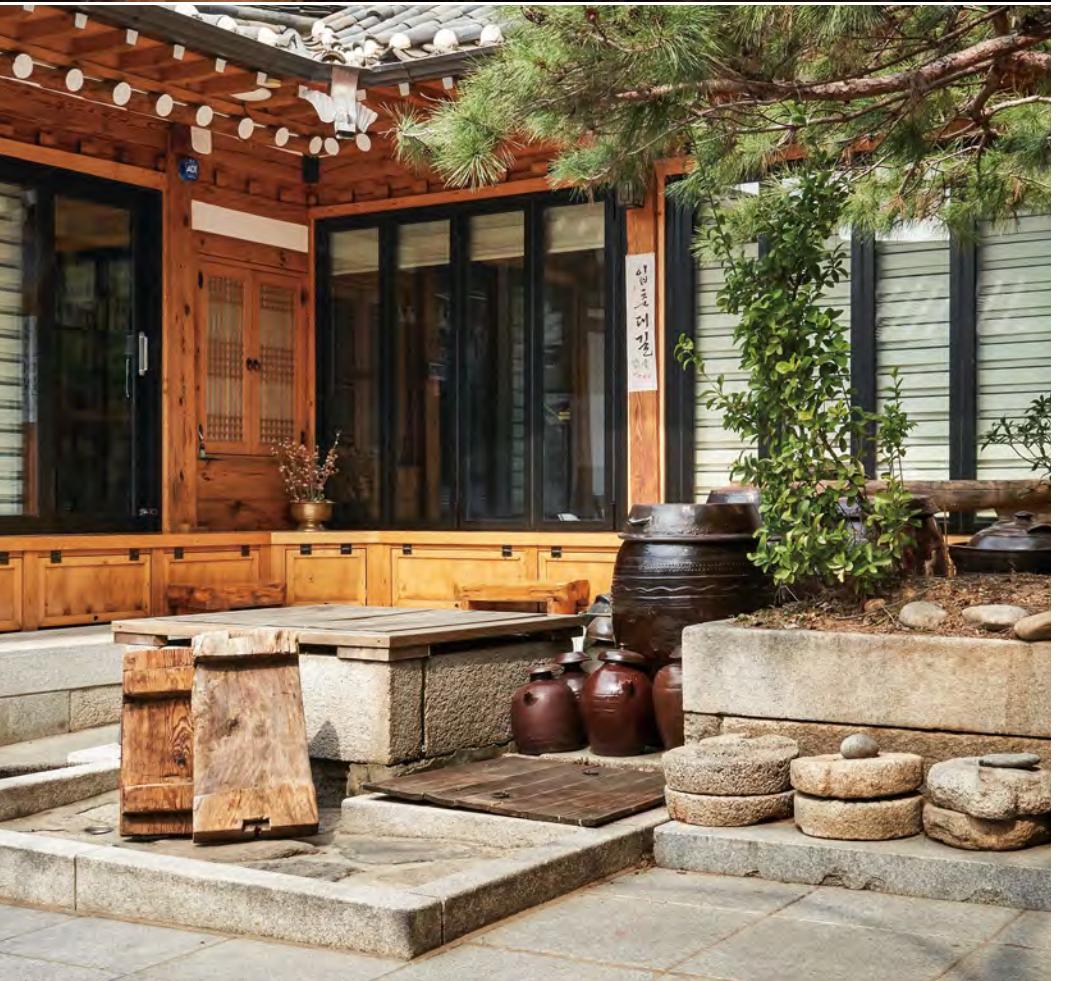
때는 왜 그 말을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가슴 한 자락에 남아 있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한복선은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했는데, 그런 모습을 황혜성 교수는 참으로 좋아했다. 한복선은 피아노, 그림, 서예, 글쓰기 등 늘 배움에 부지런했고, 요리도 뚝딱 해내는 모습이 남달랐다. 특유의 순발력과 적극성은 그녀가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한글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좋은 글씨체를 연마해서 직접 쓴 글씨로 시를 적어 넣은 시집을 내는 것이 바람이란다. 먼 훗날에 대해 물어 주지 없이 '그냥 엄마'를 꿈꾼다는 그녀. 요리 연구가 한복선이 들려주는 맛있는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밥 하는 여자가 쓴 맛있는 시,
음식 시집

“말로 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 속이 뻥 뚫린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글 안에 담는 것이다. 내 영혼의 날아가지 않는 것을 주워 모으겠다.” 제 시집 서문에 적은 글입니다.『밥 하는 여자』와 『조반은 드셨수』 두 권의 시집에는 일상의 이야기부터 음식 만드는 법까지, 다채로운 문화가깃들어 있어요. 일상의 문화, 한국 음식의 문화를 담은 제 시는 산문시이면서 역사시라고 할 수 있지요.



맛있는 추억이 피어나는 곳,
궁중음식연구원

1971년 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궁중음식연구원이에요. 창경궁 돌담길 골목 끝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한옥과 아담한 마당이 있는 이곳을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또한 궁중음식연구원은 어머니와 세 딸의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곁에서 궁중 음식을 접하고 도우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궁중음식연구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입 안 가득 들어온 봄,
냉이 무침

저는 사계절 중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와 진달래를 보면 봄기운이 느껴져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쓴 시에도 봄 음식이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점심 반찬의 주재료인 냉이에 대한 시도 있어요. 향이 진한 냉이 나물을 초고추장에 무쳐 한입 가득 먹으면 입 안에 봄 내음이 퍼져요. 봄을 부르는 시 한 편과 함께 봄 음식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봄이 한 뼘 가까워질 겁니다.



엄마는 여전히 이곳에,
엄마의 유품

어머니는 기록의 여왕이셨어요. 세 딸이 붙여 준 별명이죠. 어머니는 궁중 음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서도 늘 펜과 노트를 놓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 곳곳의 전통 음식 요리 방법은 물론 옛날 요리 도구들도 그림으로 담고 치수까지 정교하게 기록하셨죠. 이렇게 빼곡히 기록한 수첩과 노트는 연구원 지하를 가득 채울 정도죠. 이 자료들은 저희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기록한 어머니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Roman Holiday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위한 건배 <로마의 휴일> 키안티 와인

그런 날이 있다. 취하고 싶지만 망가지고 싶지는 않고, 소박하고 싶지만 촌스럽고 싶지는 않은 날. 기분 좋은 취기를 선사하는 와인처럼 은은한 낭만이 담기는 그런 날. 이렇게 봄을 탈 때면 자연스레 고전을 찾게 된다. 1953년의 로마라면 숨겨 두었던 와인을 슬그머니 꺼내 보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닐까.

<로마의 휴일> 속 아름다운 연인, 앤과 조처럼 말이다.

글: 정재광

<로마의 휴일> 속 여운을 간직한 와인

유럽 순방 중 로마를 방문한 공주 앤(오드리 헵번)은 우아한 자태로 공식 행사들을 소화한다. 하지만 드레스보다 파자마를 좋아하는 소녀는 기계같이 해내야 하는 일정이 답답하기만 하다. 급기야 늦은 밤 몰래 대사관을 빠져나온 그녀는 우연히 미국 기자 조(그레고리 펙)를 만나게 된다. 세기에 남을 휴일은 그렇게 시작을 알린다.

조는 앤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친구인 사진자를 불러 그녀를 기삿거리로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앤의 순수한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 두 사람의 즐거운 하루가 끝나갈 무렵, 공주를 데리러 온 왕가의 비밀요원들과 엉켜 선상파티는 난장판이 되어 버리고, 물에 함빡 젖은 채 집에 돌아온 앤과 조는 와인을 나눠 마시며 이별을 준비한다. 앤은 곧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조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예정된 이별을 앞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아쉽기에 더 빛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와인의 씹쌀한 향기가 전해 온다.

앤은 왕실의 일정에 큰 차질을 냈고 조는 내기까지 걸었던 특종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긴다. 하지만 이 실패한 하루는 앤에게 최고의 휴일이 되었다.



앤은 그 휴일을 추억하며 무엇을 떠올릴까. 이별의 순간에 여운을 더해 준 그 와인의 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낭만을 담은 등근 병 '키안티 피아스코'

영화 속에서 앤과 조가 나눠 마신 와인은 이탈리아의 키안티 Chianti 와인이다. 이탈리아는 종주국의 지위를 프랑스에 넘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와인의 역사를 대표하는 나라도. 키안티는 토스카나의 완만한 산악 지대에 자리한 동명의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통칭한다. 토착 포도 품종인 산조베제를 사용한 레드 와인으로 산도가 높은 감칠맛이 매력이다.

키안티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는 키안티 와인은 생각보다 고급 와인은 아니다. '키안티 피아스코 Chianti Fiasco'라고 부르는 테이블 와인으로, 등근 병을 짚으로 감싼 독특한 외형 덕분에 영화를 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피아스코'는 등근 바닥을 지닌 유리병을 가리키는데, 이 병이 와인병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연은 흥미롭다.

유리 공예로 유명한 베네치아 장인들은 불량품이 나오면 한쪽에 모아 두고 피아스코라 칭하면서 자책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패작인 이 등근 유리병에 농부들이 와인을 담아 마시기 시작했다. 와인병을 짚으

로 감싸고 새끼줄로 매 허리춤에 차니 일하는 중에 마시기 알맞았던 것이다. 이런 유래로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된 키안티 피아스코는 가볍고 경쾌한 이미지와 함께 이탈리아의 보편적인 와인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실패로 완성된 이 와인병도 이제는 영화와 함께 시간의 뒤편으로 물러났다. 시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와인병을 감싸는 짚 바구니를 생산하는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었고 위생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고전 <로마의 휴일>도, 앤과 조의 이별을 장식해 준 키안티 피아스코도 이제는 굳이 찾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대상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누구라도 키안티 와인과 <로마의 휴일>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봄은 늘 문득 왔다가 어느새 가버릴 테고, 아쉬운 순간의 낭만을 잡아두려 할 때마다 우리는 앤과 조의 등근 와인병을 떠올리게 될 테니 말이다.

키안티 피아스코
불량 유리병 '피아스코'에 농부들이 와인을 채워 마시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 등근 바닥을 세우기 위해 벗집으로 바구니 '라피아'를 만들고 새끼줄을 활용해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가볍고 경쾌한 이탈리아의 보편적 와인이었으나 지금은 만나 보기 힘들어졌다.



Chianti wine list



❶ **브롤리오 키안티 클라시코**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가문 바론 리카솔리의 키안티 클라시코.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드라이 와인의 묵직함이 매력 포인트.

❷ **포지오 스칼레테 키안티 클라시코**
평균 수명 80년 이상의 오래된 포도밭에서 자란 산조베제를 이용해 만든 와인. 블랙베리, 자두가 풍부한 과일 향을 선사.

❸ **페폴리 키안티 클라시코**
700여 년간 26대를 이어 온 와인 명가 안토니노가 만든 현대적인 키안티 클라시코. 풍부한 체리 향을 지닌 캐주얼한 와인.

❹ **베라차노 키안티 클라시코**
뉴욕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탈리아 와인으로 꼽히는 베라차노의 키안티. 붉은 장미 향이 피어오르는 향긋한 와인.

SPAM®

짭조름한 햄 통조림, 광고 메일이 된 사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정부에게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싸우고 있는 젊은 군인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일이 큰 숙제였다. 정부에게 값싸고 썩지 않는 고기는 무기만큼이나 중요했다. 마침 미국의 '호멜'이라는 식품회사가 너무 질기고 비계가 많아 팔리지 않는 돼지고기의 어깨살을 깡통조림으로 만들어 포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여기에 들어간 매콤한 조미료 때문에 호멜 식품사 관계자들은 이 상품을 'spicy ham'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줄여서 'SPAM'이 되었다고 한다. 돼지 어깨살 'shoulder of pork and ham'을 줄여 'SPAM'이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있다. 잘 먹는 군인들이 잘 싸우기 때문에, 스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도 많다. 아직도 미군 기지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로 오늘날까지 명절에 스팸 선물세트를 팔 정도로 스팸은 인기 상품이다. 섬나라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 스팸 맛에 익숙해진 노동자 계급들은 쭉 스팸만 찾았다. 1970년대 영국에서 '몬테파이톤'이라는 코미디 그룹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극으로 웃음을 주는 것이 특기였다. 이들이 만든 한 비디오 영상에서 몬테파이톤 멤버들이 싸구려 음식점에 갔다. 그런데 그곳의 모든 음식에 다 스팸이 들어 있었다. 그들이 사 먹을 만한 것이 없다며 고민하는 동안 갑자기 바이킹들이 음식점에 쳐들어와 "SPAM, SPAM, SPAM, SPAM!"이라며 가사가 'SPAM'만 되풀이되는 노래를 불렀다. 한 컴퓨터 해커가 이 코미디 비디오를 보고 다른 해커들에게 일종의 바이러스를 유포했다. 이 바이러스 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고 프린터에 'SPAM, SPAM, SPAM, SPAM'이라고 찍혔다. 이 바이러스 파일이 작동을 시작하면 컴퓨터 전원을 뽑기 전에는 멈춰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체 모를 프로그램이나 메시지, 원하지 않는 쓰레기 코드들을 'SPA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메일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이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광고 메시지라는 의미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조승연의『이야기 인문학』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인문서다.

2017년『아주좋은날』에서는『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Aju + Style

아주 스토리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인사를 나눌까요?

출근하는 가족에게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와
단골 고객에게

그리고 가끔은
내 안의 행복과 내 이웃의 행복에도
띠뜻한 인사를 건네 보세요

사소한 인사가
우리의 매일을 얼마나 밝게 만들어 주는지
아주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율로는 'You Only Live Once(한 번뿐인 인생)'의 약자다. 직장인 사이에서도 율로 라이프를 즐기는 유희족이 늘어나고 있다. 유희 열풍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유희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와 유희 라이프를 꿈꾸는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가치를 살펴보고, 유희 라이프에 대한 아주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살펴 본다. 글. 김희란 일러스트. 민지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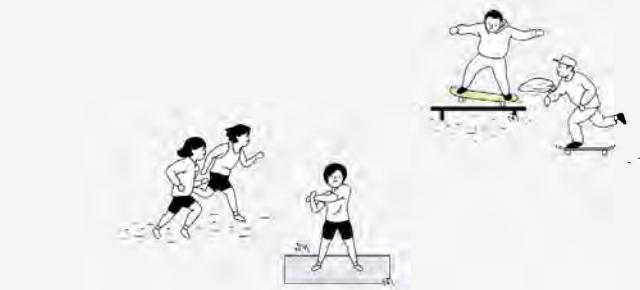


SP

짭조름한 햄 통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정부에게는 사기를 먹이는 일의 큰 숙제였다. 정부에게 값진 미국의 '호멜'이라는 식품회사가 너무 질기고 통조림으로 만들어 포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관계자들은 이 상품을 'spicy ham'이라고 했지만 어깨살 'shoulder of pork and ham'이라는 군인들이 잘 싸우기 때문에, 스팸이 제작되었다. 아직도 미군 기지가 남아 있는 정도로 스팸은 인기 상품이다. 우리나라 영국도자 계급들은 쭉 스팸만 찾았다. 1970년대 양자 끝았는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으로 오영상에서 몬테파이톤 멤버들이 싸구려 음식들어 있었다. 그들이 사 먹을 만한 것이 없다며 어와 "SPAM, SPAM, SPAM, SPAM!"이라는 컴퓨터 해커가 이 코미디 비디오를 보고 디자이너를 만난다. 이 바이러스 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고 찢혔다. 이후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인터넷에 떠는 쓰레기 코드들을 'SPA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들어오는 광고 메시지라는 의미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조승연의『이야기 인문학』김영사는 언어 속에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는 책이다. 2017년『아주좋은날』에서는『이야기 인문학』의



'올로'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의 행복을 채우고,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직장인, 올로 라이프를 즐겨야 하는 이유

올로는 'You Only Live Once(한 번뿐인 인생)'의 약자다. 직장인 사이에서도 올로 라이프를 즐기는 올로족이 늘어나고 있다. 올로 열풍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올로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와 올로 라이프를 꿈꾸는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가치를 살펴보고, 올로 라이프에 대한 아주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살펴 본다. 글. 김희란 일러스트. 민지홍



취미는 나의 힘 무엇이든 섭렵족

DIY, 피겨 수집은 물론 서핑까지,
색다른 취미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슈 메이커 부지런한 엄지족

파워 블로거부터 인스타그램까지,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즐기는 사람들

작은 가치 나의 행복 스몰 럭셔리족

비싼 명품보다는 작지만 나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



동네 번쩍 서예 번쩍 훌쩍 여행족

경험이 자산이다, 틈틈이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올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2017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신조어 '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이란 뜻이다. 올로의 시작은 캐나다 출신 가수 드레이크(Drake)의 노래 <The Motto>(2011)의 한 소절인 '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YOLO(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게 인생의 진리지. 올로)'가 주목 받으면서부터였다.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독려 동영상에서 "YOLO, Man"을 외쳐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꽃보다 청춘_아프리카> 편을 통해 '올로' 봄이 불었다. 젊은 세대에게 올로는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현재의 삶에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해 현재를 희생하기 보다는 너도나도 'YOLO'라는 단어를 적어 놓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지향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성세대에게 젊은 세대의 '올로 라이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노후 준비할 돈도 없는데 연휴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고급 커피나 수제 햄버거를 사 먹는 젊은 세대에게 굽지 않은 시선이 돌아갔다. 과중한 노동으로 가정을 지탱하면서 고속 성장 시대를 경험한 7080세대에게는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일탈이라고밖에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쓸 곳과 안 쓸 곳을 철저하게 나눠 자신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비에 큰 가치를 둔다. '나를 위한 사치, 나에게 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올로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다. '올로'는 오늘 하

루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의 행복을 채우고, 나아가 혼자만의 행복을 넘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막연한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는 대신 오늘의 구체적인 행복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올로 라이프'인 것이다.

올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유형

올로 열풍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금, 올로 라이프를 즐기는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20~30대가 중심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50~60대에서도 올로 라이프의 특징이 나타나는 추세다. 젊을 때 취미 하나 즐기지 못하고 집 사고 아이 키우느라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기성세대의 아쉬움이 올로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그러니 '올로'가 젊은 세대가 즐기는 철없는 일탈이라는 생각은 그만 접어 두자. 연령에 상관없이 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올로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기준으로 올로족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래가 아닌 지금'이다. 지금 아끼며 나중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DIY, 피겨(Figure) 수집, 서핑 등 색다른 취미를 즐기는 '섭렵족'이 있다. 섭렵족인 직장인은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 주말 등을 활용해 오직 나를 위한 시간에 투자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섭렵해 나간다. 미래가 아닌 지금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항상 내일을 생각하며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이익과 후회, 걱정 등을 끌어안고 자신을 괴롭히기보단 현재 삶에 충실향한 자신을 지향하며, 미래보단 지금 하는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둘째는 '소유가 아닌 공유'다. 집이나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가치 있게 장식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파워 블로거부터 인스타그램까지 SNS 소통을 즐기는 '엄지족'이 이에 해당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탓에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님에도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관리해 가치를 높이고, 셀프 인테리어 정보 등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자신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더한다.

셋째는 '물질이 아닌 경험'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시간과 돈을 쪼개서 다양한 경험에 투자하는 것으로, 모든 경험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여행족'이 대표적이다. 올로족 직장인 김아주 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결혼 자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을 때 통장 잔액은 제로가 되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이들의 과감한 선택을 비난할지도라도 여행족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자'라는 마인드로 경험을 통해 삶의 행복을 채워 나간다.

마지막은 '사치가 아닌 가치'다. 비싼 제품 혹은 누군가 쓸모없다고 평가하는 제품일지라도 나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기꺼이 소비하는 것으로, 작은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스몰 럭셔리족'이 이에 속한다. 입사 1년 차 신입사원이라는 김조은 씨는 자신의 생일에 20만 원이 넘는 명품 향수를 구입했다. 너무 비싼 것 같아 고민했지만 지금껏 자신을 위해 쓴 돈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향수를 선물했다. 이는 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소비로 충동구매와는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비가 아닌, 작은 사치로 삶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에 기준을 둔다.

현재를 즐긴다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자식이나 가족 모두를 포기하며 오로지 나의 삶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올로 라이프는 그 반대다. 여행, 취미 등 새로운 도전 속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로 라이프는 나이, 환경 등 조건에 얹어야 주저하던 현실을 마주하고 현재와 경험에 투자하는 삶을 즐기라고, 즉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순간에 충실향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반드시 모든 직장인이 올로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몰려올 때 "올로!"를 외치며 하루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아주인들은 올로 라이프를 어떻게 바라보며 실천하고 있을까.

아주인이 생각하는 율로 라이프

「아주좋은날」 편집팀은 직장인의 율로 라이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주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총 196명의 아주인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의 문항은 율로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 그치기보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나 직장생활과 함께 조화롭게 추구 가능한 이상적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다.

율로가 2017년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62.8%의 아주인은 율로 라이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율로족이라고 생각하는 아주인은 16.3%에 그쳤다. 이를 통해 유통하는 트렌드가 아직 직장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유통족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아주인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아주인의 비율이 41.8%로 같다라는 것.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생활 속에서 유통에 담긴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지금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행복에 대한 아주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행복하다'고 답한 아주인이 49.5%,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1.6%,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8.7%로 아주의 경영 철학인 '행복'을 생활 속에서 충분히 느끼는 아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의 이유를 "사랑하는 가족과 마음이 잘 맞는 직장 동료가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아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아주인들이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주인들은 혼자가 아닌 가족, 회사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37.2%)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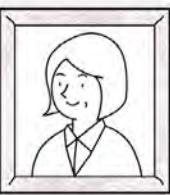
'미래의 행복'(50%)을 위한 투자를 중시하는 편이었다.

그렇다면 아주인들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할까? 현재 아주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하루 평균 1시간 미만~2시간 가량 가지고 있었으며, 한 달 기준 10만 원 미만~3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주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41.3%)와 '여가 시간 확보'(21.9%)가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적절한 휴식, 여유를 즐기는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이라 꼽은 아주인들. 한번뿐인 인생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가족, 동료와 함께하는 미래까지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아주인들의 행복을 응원해 본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 유통 라이프란?]



김아주 (20대 여성·호텔 부문)
율로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로지 미래를 위해 살기보다는 현재의 젊음에 감사하며 즐기고자 한다.
율로 라이프란 후회하지 않는 것, 현재의 상황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 건강한 몸 등)에 감사하며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조은 (30대 여성·금융 부문)
늘 위로만 올리기야 하는 경쟁사회에서 타인과
마주하지 않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 오롯이 나를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는 취미나 여행, 작은 공간 등.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힐링타임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자 유통 라이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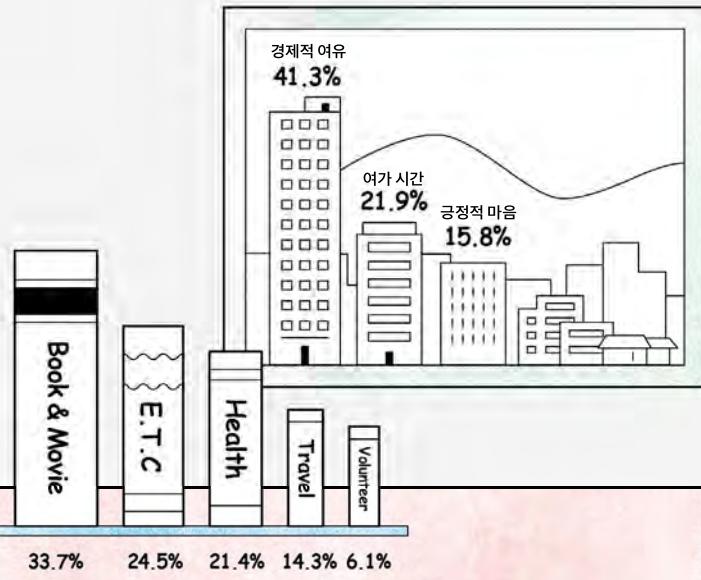


박배일 (40대 남성·건자재/전문건설 부문)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현실의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통족이다. 가족과 직장, 나의 취미를 즐기는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하다. 나에게 유통 라이프란
미래에 대한 준비를 50% 줄이고 지금의 가족과 나의
즐거움에 50%를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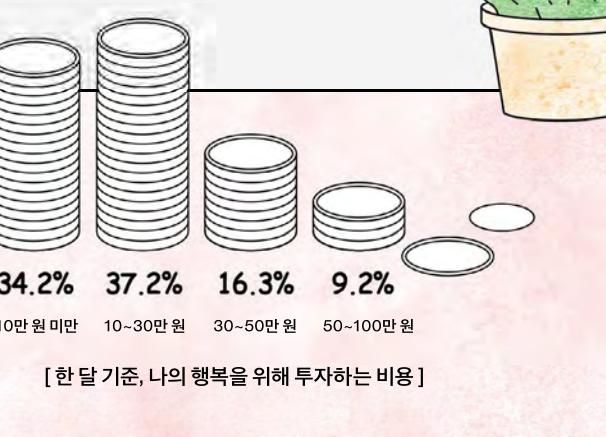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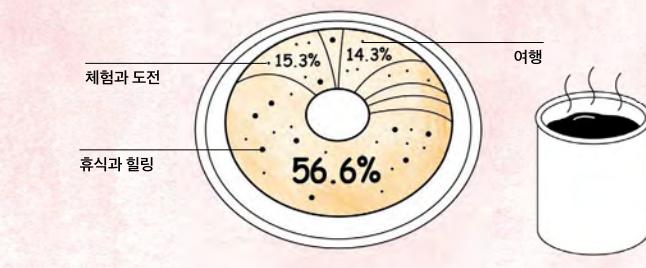


최대길 (50대 남성·호텔 부문)
나 혼자만을 생각할 때는 유통족이고 싶으나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 유통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유통 라이프가 아닐까.

[현재의 행복을 위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만의 시간에 주로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해 온 아주 행복한 공부방이 문을 연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려 왔지만 공부방 1, 2, 3호점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연합 체험활동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이들 사이에는 우정이 쌍텄고 천진난만한 웃음과 선한 마음씨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이른 봄을 불러왔다.



첫 번째 연합 행사, 뜻깊은 만남의 자리

찬 바람이 찾아들기 시작한 2월의 마지막 날. 아주 행복한 공부방 1, 2, 3호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9명의 공부방 아이들이 연합 체험활동을 떠나기로 한 덕분이었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지원, 인성 함양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주복지재단의 교육지원 사업이다. 2007년 서초구청과 연계해 서울시 우면동과 방배동에 1, 2호점을, 2010년 부천시청과 연계해 삼전동에 3호점을 개설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 왔다. 각 공부방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렇게 세 공부방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교류의 자리에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이 설렘을 더해 주었다.

천안 독립기념관 견학은 3.1절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기획. 아주복지재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한 아주 행복한 공부방 1호점 김소연 팀장은 연합 체험활동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3.1절을 기념해서 역사를 테마로 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학습적으로 의미가 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공부방 오픈 10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 비장애인 친구들이 다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와 다른 특징을 지닌 친구들을 만나 협동하는 경험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 3호점의 경우, 장애를 가진 친구들로 구성되었기에 1, 2호점 친구들과 잘 섞일 수 있을지, 나들이를 가는 것에 위험은 없을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 적응 학습 차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아주복지재단과 공부방 1, 2, 3호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조율한 결과 다 함께 신나는 나들이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경계 없이 친구가 되어 어울리는 공부방 1, 2, 3호점 아이들



독립기념관 곳곳에서 힌트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



독립군의 생활과 훈련을 체험해 보는 아이들

“주변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 함께 여행을 하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1, 2, 3호점 아이들을 한 조에 한 명씩 배치해 섞일 수 있도록 했어요. 나와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 하루의 경험으로도 훌쩍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아주복지재단 전승배 매니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버스는 천안에 도착했다. 드디어 공부방 1, 2, 3호점 친구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각 공부방에서 한 명씩 모여 구성된 13개 조에 공부방 선생님들과 일일교사로 참여한 아주 임직원들이 한 명씩 가세해 하루를 함께 보낼 팀이 완성되었다. 어색함도 잠시,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친해진 아이들이 서로를 형, 누나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식사를 마치니 뛰어놀기 좋은 오후, 아이들은 힘찬 발걸음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겼다.

아이들의 꿈이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

“저것 좀 보세요 선생님! 태극기가 엄청 많이 펼려가려요!”

독립기념관에 들어선 아이들은 화창한 햇살과 날씨를 만끽하며 탁 트인 공간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선사 시대와 건국을 거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까지 7개 전시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된 독립기념관 견학이 시작되자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고 섞이는 모습을 보니 남다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그리고 아주와 함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학을 마친 후에는 이번 연합 체험활동의 꽃인 조별 미션이 공개되었다. 견학 내용을 토대로 전시관에서 힌트를 찾아 빙칸을 채워야 하는 미션지가 주어졌고, 각 조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형! 형! 저기 조선혁명선언 답 있어!”

힘을 모아 하나 둘 빙칸을 채워 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생각과 우정도 한 뼘씩 자랐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며 협동하고 뒤처져도 당황하지 않으며 괜찮다는 격려를 주고받았다. 아이들의 목표는 더 이상 1등이 아니었다. 함께 도우며 전체를 완성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이번 연합 체험활동의 의미가 반짝하고 빛나는 끝을 한 시간이었다. 한 조도 빠짐없이 미션을 완수하며 연합 체험활동이 마무리됨을 알리는 순간, 행사를 앞두고 우려와 고민이 많았던 공부방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맴돌았다.

“10년 전, 저희 공부방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정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감사하게도 아주복지재단을 만나 지원을 받게 되었고, 특별한 인연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일반 기업에서 한 기관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긴 시간이라는 걸 알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행사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미션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고 섞이는 모습을 보니 남다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그리고 아주와 함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 2호점 윤수진 팀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확한 수치를 통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 변화는 모두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다. 1호점의 민우는 지난 겨울 캠프를 계기로 난생처음 스키를 배울 수 있었다고 했고, 2호점의 채연이는 6년간 바이올린을 배운 결과 모두가 바이올리ニ스트가 되라고 말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다. 두 학생은 모두 아주 행복한 공부방에서 자라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많은 경험을 통해 꿈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에 모인 아이들이 만들어 온 변화는 무럭무

력 자라,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아주 행복한 공부방이 지속해 온 시간을 다른 어떤 성과와도 바꿀 수 없는 이유인 동시에 앞으로도 아주가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며, 아주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할 내일을 상상하고 있다.

〈 아주 특별한 연합 체험활동을 마치며 〉



아주 행복한 공부방 노윤영 교사



아주 행복한 공부방 강채연 학생



아주호텔앤리조트 유미화 매니저

저는 저번 주에 첫 출근을 하게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 공부방 생활을 시작해 기쁜 마음이에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대화하며 저 또한 한 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지금까지 공부방에서 컸는데요, 나중에 공부방 선생님까지 되고 싶어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과 봄소풍도 가고, 역사도 배운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3.1절을 맞아 아이들과 천안에 와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순수한 아이들을 보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 10주년!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AJU NEWS

Volume 48 아주 뉴스

아주좋은날 2017 SPRING

www.aju.co.kr

[아주산업] 세계 속의 아주, 미얀마 PHC 파일 생산 공장 착공



2017년 1월 아주미얀마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
한 아주산업은 지난 3월 29일 PHC 파일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는 2008년 베트남,
2011년 캄보디아, 2013년 이라크에 이은 네 번
째 해외 진출로, 2012년 현지 시장 조사를 시작
해 4년여의 시간 동안 시장 진출 가능성을 다각
도로 검토한 끝에 맺은 결실이다.

아주미얀마가 입주한 딜라와(Thilawa)
는 미얀마 정부가 조성 중인 경제특구 지역이
다. 아주미얀마는 이곳에서 연간 20만 톤 규모
의 PHC 파일 제품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파일을 직접 시공하는 공사업도 병
행할 예정. 현재 부지 면적 5만 9822m²(약 1만
8000평)에 약 3만 9410m² 지상 2층 규모
의 사무동과 공장동, 골재장 등으로 구성된 공장

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두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상품 생산에
들어간다.

아주산업 최성욱 매니저는 “미얀마 정부는
개방 정책 이후 특별 경제특구 조성 등 인프라 투
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 PHC 파일
생산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얀마 시장
을 동남아의 건자재 공급 기지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주미얀마는 미얀마 현지 인력과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익 창출 계획을 수
립하는 단계이며, 공장이 완공되면 제품 생산 및
사무 관리를 위해 현지인 120명을 채용하는 등
미얀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주산업 해외 진출 히스토리]	
2008	업계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연간 25만 톤 규모의 PHC 파일 공장 설립
2011	캄보디아 프놈펜시 일원에 아주캄보디아를 세우며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2013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계기로 이라크 PHC 파일 시장 본격 진출



새로운 생각

ANT는 'AJU New Thinking'의
약자로 아주인의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의미



AJU New Thinking



밝은 미래

개개인의 생활이 모이면 어둠을
밝히는 전구처럼 아주의 환한
미래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



협력하는 아주

개미(ANT)처럼 전 구성원이
협력해 아주의 미래를 열고
꿈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미



혁신 문화

각종 보고서 템플릿, 명함,
임직원 대상 혁신 활동 및 캠페인에
활용해 혁신 문화를 전파할 예정

아주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변화, 혁신 활동에 대한 고유 네이밍인
ANT경영을 상징하는 엠블럼

[아주] 아주 ANT경영 본격화, 새 엠블럼 선정

2017년 4월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아
주 ANT경영의 상징 엠블럼을 발표했다. ANT란
'AJU New Thinking'의 약자로, 아주 구성원 모
두의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뜻한다.

ANT경영은 아주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변화, 혁신 활동의 고유한 이름이다. 지금껏 추구
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구해 갈 혁신 운동이며,
아주 구성원 모두의 생각을 한데 모으고 협력해
더 발전된 아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집단지
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ANT경영
엠블럼 역시 사전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임
직원 의견 청취 후 선정된 결과물이다.

아주는 그동안 사내 혁신 활동에 심혈을 기
울여 왔다. ANT경영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탄
생한 사내 혁신의 움직임으로, 일과 혁신 운
동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6시그마, CRM, 지식경영, 제안제도 등 이전의
혁신 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서부터 열의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질

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 함께 토론하며 해답
을 찾아가는 ‘일의 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한 혁
신 ‘문화’이기 때문이다.

아주의 혁신 이정표가 될 ANT경영은 긴 시
간의 준비 과정 끝에 자리 잡게 되었다. 연체동물
처럼 필요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조직 전 구성원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일본
교세라 그룹의 ‘아메바 경영’을 2014년 벤치마
킹해 2015년 아주식 아메바 경영을 완성한 데
서 출발했다. 아주산업 광명사업소에서 처음 실
시한 후 전사로 확산되었으며 2016년에는 건자
재 계열사 내부 공모를 통해 ANT경영이라는 이

름을 확정했다. 그리고 2017년에 그 의미를 전
사로 알려 나갈 상징 엠블럼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ANT경영 엠블럼에는 개미
처럼 각자 열심히 일하면서도 유연하게 협동하
는 아주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개개인의 생각은
각지고 모난 낱개의 철자와 같을지라도, 토론을
통해 생각을 모으면 둑근 전구처럼 유연하고 밝

은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
다. 앞으로 아주는 ANT경영 엠블럼을 기업 문
화 교육 및 캠페인,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며 ANT경영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조
율하며 한 빌자국이라도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장, 혁신의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하나의 기업 문화, 혁신을 향한 아주의 움직임
은 명쾌하면서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아주] 아주 특별한 소통, 같이 나누는 행복한 대화

2017년 봄에도 아주만의 특별한 문화인 '같이 나누는 행복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베트남, 캄보디아 간담회에 이어 봄 산행으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아주산업, 아주지오텍,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 투자, 아주호텔앤리조트, 아주큐엠에스,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등 각 계열사 CEO와 현장 리더 40여 명이 참여했다. 문규영 회장은 이들과 함께 4시간여 동안 청계산 둘레길을 걸으며 무한한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진솔하게 소통했다.

'같이 나누는 행복한 대화'는 구성원의 행복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문 회장의 평소 경영 철학,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매월



계열사별, 계층별로 참석자를 세분화해 산행, 현장 간담회, 독서 토론 등 색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도 같이 나누는 행복한 대

화는 문화 행사, 도시락 미팅, 임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며 아주의 수평적 소통 문화를 완성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다.

[아주] 2017 윤리행동규칙 개정 및 임직원 윤리실천 서약

아주는 투명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윤리경영 선포 후, 윤리위원회와 윤리센터를 설립,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수립·실천해 왔으며, 각 계열사 CEO들은 매년 SM포럼 CEO서약식에 참가하여 윤리경영 서약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아주의 윤리경영 행보가 2017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윤리행동규칙을 개정, 전사 공통의 단일화된 윤리행동규칙을 신설한 덕분이다.

신설된 윤리행동규칙은 새로운 항목 개설을 통해 내용이 보완되었음은 물론 행동강령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실제 임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윤리행동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에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지난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사내 인트라넷 AJIT를 통해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었고, 아주 전 사원은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윤리서약을 진행했다.

윤리서약은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규칙 내

[아주 윤리규범 前文]

아주는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아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고객, 직원, 협력업체와 나아가 국가 및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초일류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아주는 법이나 정부규제의 준수 이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용 확인, 개인정보보호의 주요방침 및 관리주체로서의 의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 조성을 포함한 사내정보 보안서약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아주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내용을 환기하고 사내 활동 속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주인들의 윤리서약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윤리를 임직원 행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생 각하는 아주의 윤리경영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아주오토리움] 경기권 고객 접점 확대, 안양 전시장 오픈

아주오토리움 안양 전시장이 지난 3월 1일 문을 열었다. 볼보가 추구하는 스칸디나비안 감성의 VRE(Volvo Retail Experience)가 느껴지는 전시장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 그랜드 오픈 행사와 'S90 로드쇼 행사'를 진행, 방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안양 전시장은 경기 서남부권에 볼보 자동차를 알리기 위해 일산, 목동 전시장에 이어 세 번째 오픈한 공간으로 볼보 자동차 전시장은 물론 서비스센터까지 통합 운영한다. 특히 볼보 개인 전담 서비스(Volvo Personal Service, VPS)가 주목받고 있는데, 스웨덴 본사 교육을 수료한 정비 기술자가 손님의 차량을 전담해 일괄 관리하는 특별한 서비스다.

전시관 2층에서는 스칸디나비아 풍으로 조성



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공간 속에서 차량 상담을 받으며 쉬어갈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방문에 참고할 것.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65
전화번호 031-385-6789(전시장)
031-385-7255(서비스센터)

[아주산업] 아주만의 혁신, ANT경영 교육 실행

아주산업 경영혁신팀은 지난 3월 20일, 광명·수원사업소를 시작으로 '2017 건자재 매니저 혁신 교육'을 추진했다. 3월 31일까지 진행된 혁신 교육은 본사 및 건자재 전 사업 현장을 순회, 매니저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혁신 교육의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혁신 메시지와 ANT경영의 취지를 알리는 것. 빠르고 정확한 교육을 위해 이철환 본부장을 비

롯한 경영혁신팀이 직접 강사로 나서, 밀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현장 매니저들은 첫째, 2017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와 혁신 정신을 공유. 둘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통한 공감대 형성. 셋째, 아주만의 혁신 문화인 ANT경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며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 함께 교육을 통해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에 대한 비전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아주산업 경영혁신팀은 같은 취지의 교육 활동을 온라인 교육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하얏트리젠시제주] 제주를 만끽하는 법, 패밀리 요트 제주 패키지와 제주 감귤 스파 패키지

하얏트리젠시제주는 특별한 패키지와 함께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패밀리 요트 제주 패키지는 제주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트 체험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로, 요트 체험과 호텔에서의 휴식을 특별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제주 감귤 스파 패키지는 객실에서의 1박과 제주 감귤 트리트먼트 2인 이용이 포함된 패키지다.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무료



이용 혜택까지 제공하니 주목해 볼 것. 두 패키지는 모두 2017년 말까지 운영된다.

가격 문의 및 예약 064-733-1234,
jeju.regency.hyatt.kr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경험의 반복으로 인한 고정관념이 새로운 사고와 발상을 가로막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껏 패션은 옷 입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여겼는데, 금기숙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린 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변화해야만 창의력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윤 님·cover gallery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모험은 계속된다’는 칼럼 제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용기를 준 ‘아주좋은날’ 신년호 덕분에 삼십삼일에 그치더라도 지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모두 늘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매일을 보내시길,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기원합니다. 김종신 님·curator's choice



뮤지컬 배우 전수경 님이 하신 이야기 중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죠”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당당히 해내는 것, 그 자체가 빛나는 예술 같기도 합니다. 이한주 님·people



저도 어릴 적 달동네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겨울에 연탄을 마련하고 김장만 해 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했지요. ‘제12회 사랑의 부싯돌’ 관련 칼럼을 읽으며, 잠시나마 옛 추억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한영재 님·aju shairng

더 나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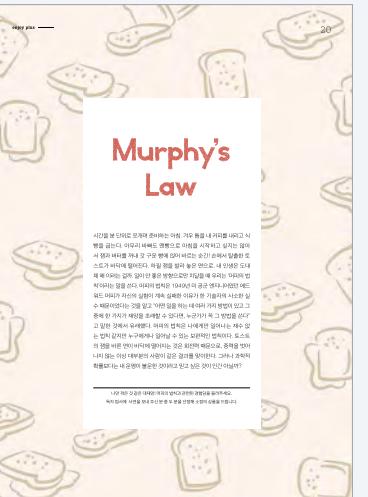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송기임 님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김성준 님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한영재 님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김종신 님 경남 진주시 하대로, 문수진 님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권)

최두현 님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이행준 님 경기 군포시 금산로, 성애선 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이한주 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이정윤 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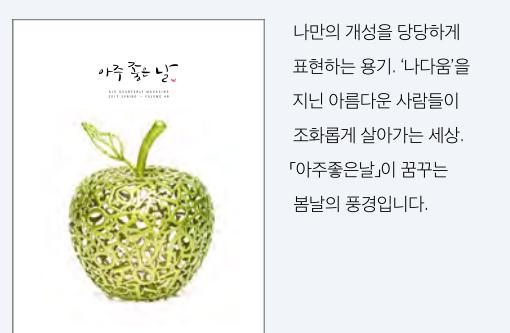
지난 호 enjoy plus 사연 당첨자 공개



추석 때 서울로 돌아오는 입석 열차에서 내릴 듯 말 듯 내리지 않던 젊은 여성으로 인해 희망고문에 시달렸다는 사연과 여행만 가려고 하면 비가 쏟아진다는 사연을 들려주신 두 독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춘성 님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주필순 님 부산시 서구 망양로

다음 호에서는 소외와 편견의 대명사, 원손잡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공개됩니다.



나만의 개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용기. ‘나다움’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아주좋은날」이 꿈꾸는 봄날의 풍경입니다.

아주산업

아주베트남

아주캄보디아

브이샘

아주케이블

아주지오텍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투자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오토서비스

아주오토서비스

아주복지재단

하얏트리전시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글로벌

아주큐엠에스

당신의 아름다운 편지
잘 받았습니다

막 피어나는 꽃잎처럼
떨리는 당신의 속마음이
손끝에 파르르 묻어옵니다

눈 들어
봄이 오는 산천을 봅니다

이 봄
당신에게로 가는 길 하나
지금 열립니다

김용택 作 ‘사랑의 편지’ 중에서



〈The Warmest Memory〉
일러스트레이터. 김하늘



1-2-1
2-2-1
3-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아주 카뮤니케이션팀
06626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	

WHILE
THERE'S
LIFE,
THERE'S
HOPE.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Cicero 키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 제작자 및 저작권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5.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4.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3.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2.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주제별로 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과 함께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주 좋은 날

vol. 48
2017 SPRING

「아주좋은날」vol.48을 읽고 난 소감을 적어 주십시오.

원손잡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십시오.(p.20)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아주좋은날」을 제작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